

창업박람회,  
다 똑같은가요?

## 가맹사업 확장을 위한 최고의 방법

**IFS** | 대한민국 최대규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2023년 참가업체 모집중

IFS는 귀사의 성과를 위해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서울 상반기

23년 3월 30일 - 4월 1일

COEX

서울 하반기

23년 10월 5일 - 7일

COEX

T. 02-561-6172 E. info@ifskorea.co.kr H. www.ifskorea.co.kr

주최 **KFA**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orea Franchise Association

주관 **RX coex**

프랜차이즈월드

Vol.60 2023

“세계 유일” 예상매출액 제공 의무 폐지해야”

Korea Franchise Association

# Franchise WORLD

Vol.60 2023

### + Cover Story

“세계 유일” 예상매출액 제공 의무 폐지해야”

K-프랜차이즈 선진화 국회정책토론회

“프랜차이즈 재도약 기반 세워 국민산업으로 발돋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3대 역점 사업발표

### Special Report

제54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3.30~4.1 개최

‘가맹지사 보호’ 가맹사업법 개정안 논란

“회원사 가맹점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지원”

제11기 KFCEO 교육과정 3.20 개강

### People & Company

나명석 자담치킨 회장

오몽석 부울경지회장(불막열삼 대표)



**KFA**  
Korea Franchise Association



franchise *buffet*



먹고싶은 음식을 마음껏 즐기는 기쁨

Sushi-Roll & Salad Bar

정성 가득히 늘 최선을 다하는 쿠우쿠우입니다.

고객센터/가맹문의 1577-4841



# 프랜차이즈산업 혁신 리더 양성 제11기 KFCEO과정 모집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식 CEO 교육

## 모집요강

- **교육기간** : 23. 3. 20 ~ 23. 6. 19.(14주 과정) ※ 매주 월요일 15:00~18:00
- **교육장소** : 전경련회관(서울 여의도 소재)
- **교육대상**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CEO, 프랜차이즈 산업 협력회사, 프랜차이즈 진출 희망기업 CEO, 프랜차이즈 관련산업 2세 경영자
- **교육비용** : 400만원(부가세 별도)
  - 20% 할인 : KFA회원사,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과정 및 연세대학교 프랜차이즈 CEO과정 수료자
  - 10% 할인 : 2인 이상 등록 시, 회원사 추천 시

## 과정특징

- **CEO 토크쇼**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CEO들과 함께하는 토크쇼
- **현장 연수**  
프랜차이즈 현장을 찾아서 벤치마킹하는 현장 세미나
- **코칭과 멘토링**  
전문가 및 협회 임원들이 참여하는 원우 멘토링과 코칭
- **원우활동 지원**  
원우들의 사업소개와 홍보 활동
- **CEO 교류**  
협회, 총동문회 행사 초대 및 CEO 교류 활동



## 교육문의

이경희 주임교수 : 010-2318-8406  
협회 교육사업팀 : 070-7919-4157

## 혜택/특전

1.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지원사업 우선 참여 기회 제공
2. 협회 대상 및 각종 포상 참여시 가산점 제공
3. 협회가임 및 각종 프로그램 할인 혜택
4. 멘토제 도입을 통한 개별 코칭 기회 제공
5. 교육생 상호간 친목 활동  
(골프, 등산, 원우사 탐방, 총동문회 활동 등)

주최  
·  
주관

**KFA**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orea Franchise Association

**8UZA.biz**



“ 오늘도 **진화중**입니다. ”

**푸드테크로봇.....**

**치킨매장에서 실용성 검증완료!**

쉽다 / 편리하다 / 안전하다 / 저렴하다  
인건비절감 / 고용난 해소 / 인력 부상 및 질환위험에서 해방 / 보다 위생적인 첨단 주방 환경



다양한 **요식업 분야**로 확대 추세

**푸드테크 로봇의  
매장 설치 사례**



봇닭 신부동 본점



봇닭 포천점



봇닭 천안호두휴게소점



로슬랭 신불당본점

**푸드테크 로봇 솔루션**

- ① 공정분석 및 시뮬레이션 & 레이아웃 설계제공
- ② H/W & S/W 개발, 설치, 시운전 AS
- ③ 운용교육 및 온/오프라인 관리, TURN-KEY 솔루션제공

당신만의 특별한 디자인  
내가 원하는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카페창업'하다

**EX3**

Modular by design



▲ B타입\_블랙\_다이얼



▼ C타입\_화이트\_레버



- 2020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
- 2020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 수상
- 2020 골드 델타 ADI 어워드 수상

PID 온도 제어 시스템

오토 클리닝

쿨 터치 스킴 완드

바리스타 라이트

더블 압력게이지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

(주)에이텐은 딜러사, 지사, 프랜차이즈 등, 약 800여 개 협력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국내 최고의 커피 머신 수입 회사입니다.  
카페 플랜트 관련 기기 및 기구를 유통하는 토탈 카페 솔루션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아르푸 대표 황은주

아르푸가구는 2000년에 설립한 주문제작 가구 전문 회사 KTA그룹의 브랜드입니다.

KTA그룹은 한국T.A 운영을 기반으로 (주)티오피퍼니처, 국내 및 해외에 직영공장(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 최소한의 시간 내에 완성도 높은 제품을 제공하며 합리적인 가격,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합니다.  
직영매장 아르푸를 통해 직접적인 소통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의 요구를 즉시 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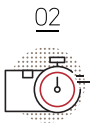
/ 사업분야

- |       |  |                                        |
|-------|--|----------------------------------------|
| 창업가구  |  | 프랜차이즈 · 레스토랑 · 식당 · 호프&펍 · 카페 · 스터디카페  |
| 숙박가구  |  | 호텔 · 모텔 · 펜션 · 리조트 · 요양시설 · 게스트하우스     |
| 사무가구  |  | 사무실 · 중역실 · 회의실 · 접견실 · 강당 · 휴게실 · 탕비실 |
| 설계가구  |  | 관공서 · 전시장 · 도서관 · 홍보관 · 컨벤션 · 교육/의료시설  |
| 가정용가구 |  | 거실가구 · 침실가구 · 주방가구 · 홈카페 · 홈오피스 · 소품 등 |

/ 아르푸 서비스



01  
업계 최고 전문 상담원  
배치로 믿을 수 있는 상담



02  
20여년 경력의 국내  
제조 공장 보유로 누구보다  
빠르게 제조 및 납품 가능



03  
가장 중요한 사후 관리  
또한 확실하게

ONE STOP  
SYSTEM



/ 아르푸가구 납품현장



이여곰탕



먹보한우



아비꼬



더벤티



달콤커피



카페온화



홀릭 스터디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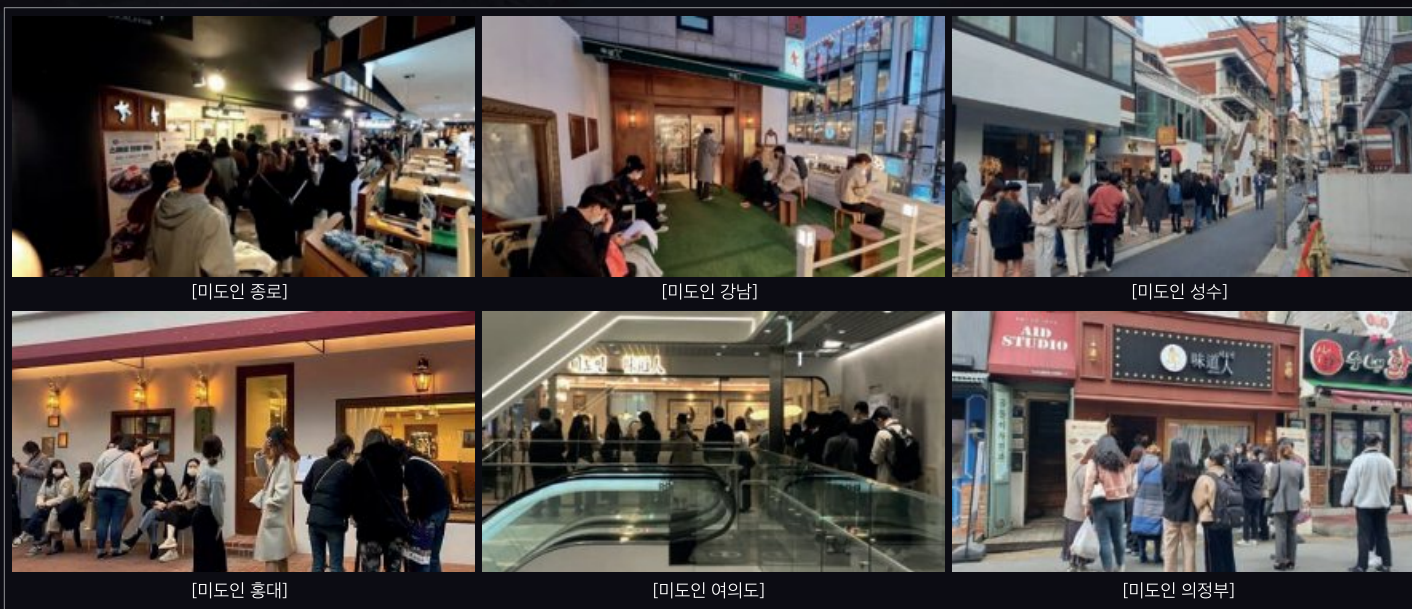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미식 기행, 답을 찾다 ...

점포별 매장전경



[미도인 종로]

[미도인 강남]

[미도인 성수]

[미도인 홍대]

[미도인 여의도]

[미도인 의정부]

피자는 한 손에 들고 먹어야 제맛

# 자르지 않고 들고 먹는 진짜 1인 피자



전 메뉴 뿌시러 가즈아



혼자도! 같이도! 어디도!



디지털인프라  
**Compact AI 컨택센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 대상, 쉽고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

**상품 개요**

- 쉽고 저렴하게 사용하고 싶은데..
- 최신 콜센터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데..
- 원하는 만큼 빌려쓰고, 빠르게 설치 가능할까?

고객 니즈 반영

“ KFA에 최적화된 통합 관리 솔루션 ”

Compact Lite

Compact Premium

효율적인 상담업무

한 눈에 보는 관리화면

ARS 서비스



편리한 상담 기능

간편한 녹취관리

Open API

**도입 효과**



초기 비용  
절감



전화 + 채팅  
동시 상담



쉽고, 편리하여  
생산성 증가



빠른서비스  
7일

**주요 기능 및 특징**



효율적인 상담업무

- 발신/수신, 내선 통화, 돌려주기, 착신전환, 당겨 받기, 호 분배, 발신번호 관리 전화 컨트롤 기능 등
- 다양한 Call Routing (Premium)



한 눈에 보는 관리화면

- 대표번호 수신 통계 및 발신 통계 제공  
상담원 개인별 통계, IVR 통계, 모니터링
- 통합 전광판 제공 (Premium)



ARS서비스

- IVR 음원 관리, IVR 근무 일정 관리, 휴일 일정 관리 기능 및 Call Back 기능 제공
- GUI IVR시나리오 에디터, 통화연결음 기능 (Premium)



편리한 상담 기능

- CTI기능, 고객정보/상담결과 관리, 녹취 및 통화/상담이력 관리, 채팅 상담 기능, 콜백관리 기능 제공
- 상담예약, 상담이관, 공지사항 기능 (Premium)



간편한 녹취관리

- 전수 녹취, 녹취 파일 청취 및 다운로드  
녹취파일 암호화 기능 제공
- 부분 녹취, 다양한 녹취 검색 옵션 (Prem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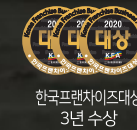


Open API

- 고객사 CRM Application과 CTI 연동을 위한 Open API 제공



본사 가맹문의 1544-7253  
www.frankburger.co.kr



버거다운 버거!  
**FRANK BURGER**  
Handmade Cheeseburger

**300호점 돌파 빅이벤트**  
**이번엔 BMW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전속모델 김종국

**NEW! MENU**  
첫 신메뉴 출시!

머쉬룸버거

₩ 7,900원 | ₩ 8,900원

JG버거

₩ 8,900원 | ₩ 11,900원

쉬림프버거

₩ 3,900원



# KSNET+ PLUS 국내 1위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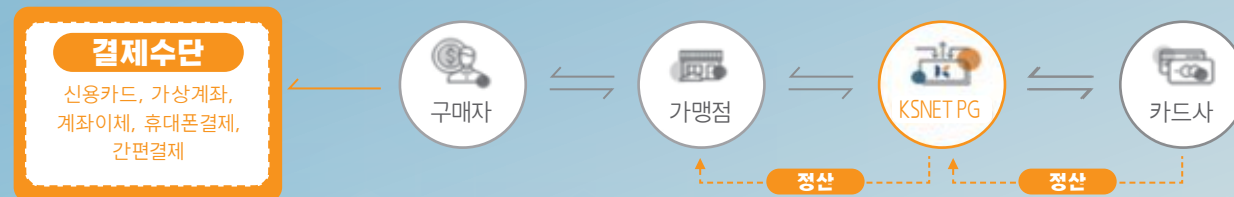
## 신용카드단말기 | POS | KIOSK

**Service 1.** 배달솔루션, 포인트솔루션, ERP 등 다양한 IT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ervice 2.** 창업자금, 물품대금서비스 및 제휴협력사(식자재유통업체, 경영지원솔루션업체 등)를 통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PG

간편결제 Toss Pay, SSG Pay, 오프라인PG, 해외결제수단, 현금영수증, 편의점결제, 문화상품권 결제, 에스프로, ARS서비스, 분할정산 및 다수 사업자결제를 지원합니다.



## 뱅킹

케이에스넷의 VAN망을 이용하여 기업과 은행 간 금융업무를 기업의 사무실에서 대량자금이체, 실시간 이체, 자금관리, 외화거래, 금융/증권정보 등을 기업의 자금관리업무에 직접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속경영 프랜차이즈의 동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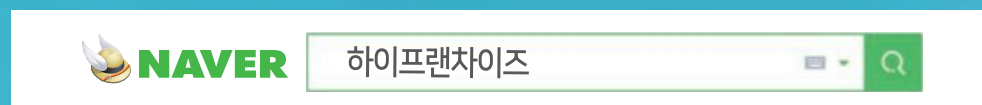
- 대표번호 1899-0015
- www.ksnetplus.com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5, 1층(서초동, 서초역 3번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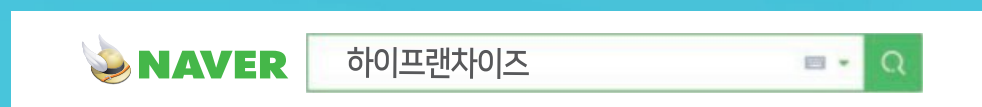
# [가맹본사들의 고민] 어떻게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홍보할까?

브랜드 홍보와 가맹점 모집을 쉽고 편하게!!!



# [협력사들의 고민] 어떻게 프랜차이즈 업체와 연계할까?

새로운 고객창출을 위한 기회!!!



www.hi-franchise.com    전화상담 : 한국컨테크 (02-2233-4750)

## 온라인 중심의 가맹점사업자 오픈교육 프로그램



가맹본부의 신규 가맹점 개설 또는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역량강화 교육에 최적화된  
온라인 전문 교육과정입니다.

### 교육과정 특징

- 오프라인과 온라인 융합 오픈 교육프로그램
- 설정된 기간 내 컴퓨터 또는 모바일로 자유롭게 수강 가능
- 가맹사업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목 선정
- 교육과정 모니터링과 평가시험 실시
- 전문가의 가성비 높은 온라인 강의 제공

### 교육과정 커리큘럼



문의 및 신청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교육사업팀) TEL 070-5133-0934





한 해 1 천 만 명 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수육국밥



- 업력 10년 이상의 믿을 수 있는 브랜드
- 유행·경기 타지 않는 메뉴로 꾸준한 매출
- 원팩시스템으로 손쉬운 조리, 인건비 절감
- HACCP인증받은 자가생산공장 운영

더진국 신규 가맹점주님을 위한

특별한  
혜택

혜택01

가맹비·계약이행 보증금 등

900만원  
지원!

혜택02

인테리어 지원컨설팅 비용  
(25평 기준)

1,250만원  
면제!

혜택03

수도권 거점지역  
창업 시

800만원  
추가 지원!  
(본사 지정 지역에 한함)

더진국 가맹문의 1577-6387 NAVER 더진국 YouTube 더진국



The Nocul Life

노을 라이프

1688-4405

이별의 아픔  
노을라이프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표 최지선

명품 KFCEO 7기  
연대 FCEO 36기



## The Letter from President

019 정현식 협회장 인사말

## The Letter from Publisher

021 이진창 발행인 인사말

## Cover Story

022 “예상매출액 제공 의무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  
K-프랜차이즈 선진화 정책토론회

028 “프랜차이즈 재도약 기반 세력 국민산업으로 발돋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3대 역점 사업발표

## Special Report

032 “가맹사업법이 ‘전가의 보도’인가”  
‘가맹지사 보호’ 가맹사업법 개정안 논란

036 “창업 열풍 올해도 계속”  
제54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3.30~4.1 개최

038 한국프랜차이즈협회, 2023년 대의원 워크숍 및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040 ‘제5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신년 하례식 연계로 회원사 단합의 장 마련

044 제11기 KFCEO 교육과정 3.20 개강

046 전기료·난방비 급등에 자영업자 부담

048 2023 WFC 라스베이거스 총회에 협회 참가

049 2023년 재직자 무료교육

## Hot Issue

050 회원사 가맹점, 2023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지원

051 배민 배달료, 2월부터 거리 기준으로 책정

052 소주·맥주값 인상 논란...정부 압박에 ‘동결’

053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원서 5만원 인상 논의



오늘도  
김가네

같은 음식이라도, 담아내는  
진실한 마음은 모두가 다릅니다.

. 2021년 신메뉴, 치킨마요덮밥 .



김가네

(주)김가네는 고객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자세를  
우선시하는 외식 프랜차이즈로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www.gimgane.co.kr  
가맹문의 T. 1588-7187



## Organ News

- 054 근로기준법 4대 기초노동질서
- 056 한국소비자원, "배달앱, 매장 가격 달라"
- 057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등록 기준 강화
- 058 광고·판촉행사 비용분담시 유의사항

## People & Company

- 060 나명석 자담치킨 회장
- 064 오몽석 부울경지회장(불막열삼 대표)

## Brand Highlight

- 068 교촌치킨·굽네·피자플렉스
- 069 채선당·땅스부대찌개·FC다움·외식인'
- 070 케이엠에스컨설팅,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
- 071 쿠팡쿠팡, 봄 신메뉴 '피어나는봄' 출시

## Guide Post

- 082 '백종원 매직'에 되살아난 예산시장 가보니 "30년래 최대 인파"...'먹거리만 복작' 우려도

## Column

- 072 컨설팅 - 이경희  
한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보완해야 할 약점
- 074 마케팅 - 장재남  
프랜차이즈 기업의 위기탈출과 새로운 도약의 길
- 076 법률 - 안철현  
이사회 결의와 연대보증 행위
- 078 세무 - 최인용  
개정 세법과 본사의 사업구조 절세 전략
- 080 노무 - 이금구  
프랜차이즈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

## Association News

- 084 협회 분과위원회, 신년 모임 개최 외
- 087 협회·벨킨스, 무료 식품 위생교육 성료
- 088 지회소식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 090 신규회원/교육일정
- 096 구독안내



# 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프랜차이즈 산업의 백년대계 세워 나가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정현식

겨우내 우리를 움츠러들게 했던 강추위가 물러가고,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계절의 여왕 봄의 기운이 한가득한 요즘입니다.

업계에서도 경기회복 시기에 대한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는 코로나19 위기를 반복하지 않도록 역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우리 산업의 중추인 대의원 여러분들과 중장기적인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추진 과제는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의 뿌리를 확고히 하는 일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하나의 온전한 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맹사업이라는 테두리 안에 계약과 사업형태가 동일하고 비가맹사업과 특성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엄연한 독립적인 산업입니다. 이에 표준산업분류상의 특수분류에 '프랜차이즈 산업'을 신설해 법과 정책이 현장의 수요에 맞도록 더욱 세심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공포가 절정에 달하던 2020년 말, 프랜차이즈라는 이유로 일반 점포에 비해 더욱 강화된 집합금지 조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방문 고객 수, 매장 면적 수, 매출 수 등 여러 기준이 있음에도 말입니다. 지원, 보상 정책의 근거가 됐던 각종 코로나19 피해 조사에서 소상공인 조사에 묶여, 지원기준 수립시 매출이 높고 이익이 낮은 프랜차이즈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산업의 독립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가맹사업법 등 법·제도 환경을 더욱 적극적으

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산업은 '갑질 프레임' 속에 속수무책으로 각종 규제를 당해 왔습니다. 규제 홍수 속에서 협회 또한 규제 대응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19 동안 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착한 프랜차이즈 캠페인, 상생 협력과 ESG 경영 등으로 우리 산업의 이미지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합리적인 법 제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껏 성숙된 비대면 경제활동과 빅데이터, AI, 자동화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프랜차이즈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것입니다. 협회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오랜 기간 <프랜차이즈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왔으며, 이제 공식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 플랫폼은 온라인의 편의성과 오프라인의 신뢰성을 모두 담아, 정보 비교와 홍보, 상담, 교육, 업종별 창업 매칭, 뉴스, 정책·법률정보, 교육까지 누구나 창업 전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쉽고 편리하게 얻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본 플랫폼을 통해 산업인들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창업 관련 활동을 올바르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상 세 가지 핵심 추진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삼아 성실히 추진하며,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을 것입니다. 산업인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KFA**



Franchise World 프랜차이즈월드 Vol.59  
The Magazine For You

#### PUBLISHER

|         |     |                 |
|---------|-----|-----------------|
| 회장      | 정현식 | Chung, Hyun Sik |
| 발행·편집인  | 이진창 | Lee, Jin Chang  |
| 협회/사무총장 | 박호진 | Park, Ho Jin    |

#### EDITORIAL DEPT

|       |     |                   |
|-------|-----|-------------------|
| 국장    | 이 호 | Lee, Ho           |
| 이사    | 김태규 | Kim, Tae kyu      |
|       | 박창선 | Park, Chang Seon  |
|       | 홍승철 | Hong, Seung Cheol |
| 특임 기자 | 김동하 | Kim, Dong Ha      |
|       | 노승욱 | No, Seung Wook    |
|       | 박서진 | Park, Seo Jin     |
| 기자    | 김은영 | Kim, Eun Young    |
|       | 신용희 | Shin, Yong hee    |
|       | 정혜연 | Jeong, Hye Yeon   |

#### DESIGN

|    |     |                |
|----|-----|----------------|
| 실장 | 임재승 | Lim, Jae Seung |
|----|-----|----------------|

#### PHOTO

|      |     |                  |
|------|-----|------------------|
| 사진기자 | 이명철 | Lee, Myung Cheol |
|------|-----|------------------|

#### CORRESPONDENT

|               |     |                 |
|---------------|-----|-----------------|
| 대구·경북   기자    | 정다미 | Jung, Da Mee    |
| 부산·울산·경남   기자 | 정미진 | Jung, Mi Jin    |
| 강원   기자       | 손준기 | Son, Jun Ki     |
| 광주·전남   기자    | 박내연 | Park, Nae Yeon  |
| 대전·충남   기자    | 박경원 | Park, Kyung Won |
| 전북   기자       | 고재경 | Ko, Jae Kyung   |
| 충북   기자       | 박성희 | Park, Sung Hee  |

#### CONTRIBUTORS

|                |     |                 |
|----------------|-----|-----------------|
|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   | 이경희 | Lee, Gyeong Hee |
|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  | 장재남 | Jang, Je Nam    |
| 법무법인 로투스 대표변호사 | 안철현 | Ahn, Cheol Hyun |
| 법무법인 해 파트너 변호사 | 조은혜 | Cho, Eun Hye    |
| 세무회계 성우 대표     | 서성우 | Seo, Sung Woo   |
|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 최인용 | Choi, In Yong   |
| 노무법인 C&B 대표    | 이금구 | Lee, Keum Goo   |

#### CONSULTATIVE COMMITTEE

|        |     |                  |
|--------|-----|------------------|
| 편집주간   | 김영인 | Kim, Young In    |
| 편집위원장  | 정종인 | Cheong, Chong In |
| 수석편집위원 | 김용순 | Kim, Yong Soon   |



|         |                                           |
|---------|-------------------------------------------|
| 발행처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 기획/제작   | (주)KFN 애드콤                                |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9<br>706호(여의도동, 두일빌딩) |
| 대표메일    | kfn1991@naver.com                         |
| 광고문의    | 02-556-7889                               |
| 보도자료    | Webhard (ID : kfn1991, PW : 1991)         |
| 취재·구독문의 | 02-556-7889 (구독료 10,000원 / 권)             |
| 인쇄      | (주)근아인쇄                                   |
| 판매대행    | (주)성운도서                                   |
| 등록번호    | 영등포, 마00070                               |

# KFA

KFA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orea Franchise Association

프랜차이즈월드는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집지 윤리강령·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e Letter from  
Publisher

## 위기危機를 기회機會로 규제보다는 지원의 손 필요



발행인  
이진창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과 2021년, 모두 위기라고 진단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식업체와 여행, 영화 등 다수의 사람들이 몰리는 업종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때 우리가 하던 말이 “위기”다. 그리고 덧붙여 “위기危機는 기회機會다”라고 말하며 안간힘을 썼다.

그 결과 2022년 드디어 엔테믹이 찾아왔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됐다. 다시금 신명나는 장사,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에 힘을 쏟자고 다짐했다. 그런데 상황은 내 맘 같지 않다.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려니 일할 종업원이 없다. 코로나19 시기를 빚으로 버텼는데, 종업원 인건비도 올랐다. 어렵게 구한 종업원도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벌어서 종업원에게, 임대료로 건물주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다. 그래도 악착같이 버텼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일부 소자본, 비대면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저마다 최악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 높아진 식재료 원가로 인해 가맹점에 공급하기도 벅차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

가맹점 매출이 올라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발이 부르트도 록 뛰어다녔다. 이런 상황에서 가맹점 개설도 쉽지 않다. 외부 확장보다 내부 강화 전략으로 발길을 돌린 가맹본부도 많았다.

그런데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되자마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다. 매장 운영에 필수인 난방비와 전기료, 도시가스 등의 가격이 상승한 거다. 이로 인해 일명 폭탄을 맞았다는 자영업자가 속출했다.

이같은 난방비, 전기료 대란은 자영업업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속을 타들어가게 만들었다. 업무용 도시가스 요금은 주 택용보다 많이 오른 상황, 영업에 필수인 고정비가 계속해서 상승해서다. 일반 가정처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노력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직격탄’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1800억원 규모 난방비 지원 대책에는 소상공인이 소외됐다.

모두가 어려울 때 정부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 양보하라고 말한다. 착한 프랜차이즈도 그 일환이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가맹본부가 갑이라는 인식이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그렇게 상생을 외치는데도 꺾등으로 흘린다. 20년 전의 망령이 아직도 남아 있는 꼴이다.

이제는 가맹본부의 규제보다는 상생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위기危機를 기회機會로 만들기 위해 저마다 노력했다. 이제는 정부도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 프랜차이즈 업계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많은 규제보다는 상생을 위해, 그리고 K-푸드 한류의 정점인 프랜차이즈 업계를 위해 귀를 기울이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기회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한명도 없다.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것뿐이다” 앤드류 카네기의 말을 정부가 곱씹어야 할 때다. **KFN**





2월 22일 K프랜차이즈 선진화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예상매출액 제도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 규제 목적과 실효성 확보 문제”

권명호 의원실 주최 K-프랜차이즈 선진화 정책토론회

법제도 개선 통한 동반성장 모색

WRITE | 이 호국장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등 가맹사업법 일부 규제들이 글로벌 프랜차이즈 산업과 크게 동떨어져 개정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가맹사업 전반에 상생 패러다임의 확산 촉진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마련됐다.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권명호 국회의원, 최연숙 국회의원, 성백순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권명호 국회의원실과 한국프랜차이즈학회는 지난 2월 2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빠진 K-프랜차이즈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상생협력을 통해 프랜차이즈 선진화를 이루자는 취지로 열린 토론회에는 김성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김애경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총괄사무관, 성백순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한석준 하이데이터 대표, 임영서 죽이자기 대표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신뢰와 상생의 동반성장 고민”

이날 발제와 토론회에 앞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가맹산업은 서비스·외식업·유통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며,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왔다”라며 “하지만 가맹시장 규모의 확대와 함께 ‘정보비대칭성’, ‘거래상지위불균형’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갈등 또한 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또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가맹사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상생협력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프랜차이즈와 가맹점 간의 신뢰와 상생을 바탕에 둔 동반성장의 길을 찾으려 하는 입법과 정책에 고민을 깊이 해 나가겠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불합리한 법제도들이 개선돼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뒷받침해 준다면 프랜차이즈 산업도 자영업 생태계 안정과 고용창출, 해외진출, 소비 활성화로 국가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

이어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올해 재도약 발판 마련을 위해 시스템과 인프라를 정비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하



지만 서류와 맞지 않는 일부 법 조항과 제도들로 인해 산업의 재도약이 가로막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불합리한 법제도들이 개선돼 우리 산업의 재도약을 뒷받침해 준다면 프랜차이즈 산업도 자영업 생태계 안정과 고용창출, 해외진출, 소비 활성화로 국가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 토론회가 앞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세계 속의 K-프랜차이즈로 성장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 예상 매출액 제공 의무,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

이날 발제를 맡은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은 “가맹사업법은 2002년 제정된 이후 총 21회 개정됐으며, 변화를 초래한 개정은 크게 제4차 개정과 제7차 개정”이라며 “가맹본부측의 불공정행위로부터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소위 경제민주화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거래당사자를 강자와 약자로 양분하고 약자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불합리한 내용까지 법제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7차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맹사업법에만 존재하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이 가맹사업법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석준 하이데이터 대표가 상생인증제 법제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인게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인데, 합리적 근거에 의해 정확하게 산출되느냐는 문제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호주 프랜차이즈법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는 극히 예외적인 조항인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점포환경개선비용 분담 제도 ▲영업시간 준수 요구 위법화 ▲계약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제 등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적 규제’로 소개했다.

대표적인게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인데, 합리적 근거에 의해 정확하게 산출되느냐는 문제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호주 프랜차이즈법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가맹점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에게 부과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에 대해 “대상



김성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이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 방법이 잘못돼 규제 목적과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의 매출액을 예측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법이 요구해서는 안 될 내용이고, 1.7배의 허용 편차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또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숙 단계의 가맹본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도 잘못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세계 각국 프랜차이즈 법제는 예상매출액 또는 수익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괄 강제하고 있어 규제 목적과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면서 “우리 가맹사업법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최 회장은 점포환경의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한 점포환경개선비용 분담제

는 독립적 사업자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기본 속성에 어긋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업시간 준수 요구 위법화와 가맹계약 갱신시 영업지역 변경 위한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 요구 등도 가맹본부를 부당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상생협력평가지수·민간인증 도입 필요

두 번째 발제는 한석준 (주)하이데이터 대표(정치학 박사)가 <프랜차이즈 상생인증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상생협력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작동의 핵심기제로, 산업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을 시스템적으로 촉진할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평가 제도들은 참여기업 수가 극





임영서 (주)죽이야기 대표가 토론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히 제한적이고 목적도 정보제공 또는 예방 목적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요 평가제도들이 모두 상생협력을 지향하고 있지만, 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지를 평가의 준거로 설정하고 있다"라며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을 개념화한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평가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산업의 체질개선과 가맹본부·가맹점의 질적 성장을 가속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위해 "상생협력평가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지수화한 인증제를 도입한다면 업계의 이해도와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면서 "가맹사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스템적으로 가맹사업 전반에 상생 패러다임의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석준 대표가 말하는 인증제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특성이 반영된 상생협력 수준을 평가하며, 브랜드 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가맹사업자들의 공동이익 창출과 브랜드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 인증방식이다. 상생 기초평가와 상생 인증평가로 이원화해 기존의 프랜차이즈 평가제도들을 초월하는 산업 고유의 상징적인 브랜드 평가제도로 활용 가능하다는게 한 대표의 말이다. 더불어 시스템

관련 상생 프랜차이즈 개념화에 기초한 간결하고 객관적인 지표와 지수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상생협력평가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지수화한 인증제를 도입한다면 업계의 이해도와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면서 “가맹사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스템적으로 가맹사업 전반에 상생 패러다임의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개념화 ▲간결하고 객관적인 지표체계 개발 및 보급 ▲인증제 방식의 평가 관리로 대내외 관심과 참여 확대 등을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맹 시스템에 대한 산업 내·외부 인식 개선 ▲산업계 공유 및 실천 역량 제고 ▲가맹사업체의 적극적 참여 ▲브랜드 핵심 평가정보 제공 및 브랜드 선택 기준 제시 ▲상생인증 결과를 기초로 산업발전 정책 개발 및 관리방안 수립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이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공정위 “문제점 인지 조치 검토 중”

패널 토론 시간에는 성백순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을 좌장으로, 김성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김애경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총괄사무관,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임영서 (주)죽이야기 대표가 법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

김성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란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례의 규제들은 모두 국내 기업 고유의 갑질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 국가에 모범이 되는 부분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의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조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애경 산업부 유통물류과 총괄사무관은 “상생인증제의 취지는 좋으나, 통상 제도화된 인증제는 보건, 안전 등으로 반드시 필수적인 항목에 한해 도입돼 있으며, 상생의 경우 일부 모호한 개념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인증제가 필수적이 될 경우 오히려 업계에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은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의 경우 상권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 등 분명히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존재한다”라며 “대안으로 기존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를 인근 가맹점 5곳에서 가맹희망자가 선택하는 유사 상권 5곳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임영서 (주)죽이야기 대표이사는 “예상매출과 관련해 가맹점주의 능력에 따라 매출액이 천차만별로 판이하며, 실제 양도 양수가 발생할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보다 매출액을 2배 상향시키는 경우도 있고, 절반 만큼의 매출액이 나오는 가맹점도 존재한다”며 “특히 배달플랫폼 등장으로 전통적인 영업지역의 개념이 크게 변한 상황으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 국내 기업의 갑질 문제에 대해 규제의 제도화보다는 해당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고, 가맹본부 설립시 협회에 가입하게 하여 가맹본부를 운영하기 위한 지식, 윤리 등을 법적으로 교육받게 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규제에 대한 선제적인 개정 요구 및 이슈화 ▲최영홍 교수, 임영서 대표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내용의 공신력 제고 ▲정부 실무 부서 책임자가 직접 참가해 공식 입장을 내놓고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는 직접적인 소통의 장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들이 대거 참여해 협회 활동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KFN**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장기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 “프랜차이즈 산업 재도약 위한 기반 세워 국민 산업으로 발돋움”

한국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개정 등 3대 중장기 역점사업 계획 발표

WRITE | 김동하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제8대 협회장 임기(‘23~’25) 동안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역점사업에 집중해, 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재도약을 도모한다.

협회는 지난 2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제8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장기 역점사업을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임영서 협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주)죽이야기 대표), 강석우 협회 상근부회장, 박호진 협회 사무총장 등 협회 관계자와 50여명의 출입기자들이 참석했다.



정현식 협회장이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등 가맹사업법 독소조항을 설명하고 있다

정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올바르고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서, “8대 협회장으로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불합리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의 재도약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 협회장은 3대 중점 과제로 ▲표준산업분류 특수분류 가맹사업 신설 ▲가맹사업법 등 법제도환경 적극적 개선 ▲프랜차이즈 종합지원 플랫폼 안착을 제시했다.

### 프랜차이즈 산업 독립성 확보

협회는 최우선 사업으로 여러 업종으로 쪼개져 있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별도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분류되도록 통계청 등 정부 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임영서 커뮤니케이션위원장((주)죽이야기 대표)가 예상매출액 제공의무 관련 사례를 보충설명하고 있다

현재 가맹사업은 별도 분류없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대분류 상 1)숙박·외식, 2)도매 및 소매업, 3)교육서비스업, 4)사회복지서비스업, 5)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산재해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올바르고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서, “8대 협회장으로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불합리한 법제도를 개선하고 성장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의 재도약과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참고1. 프랜차이즈 산업 관련 통계작성 현황〉

| 구분            | 주관기관    | 내용                                                                   | 비고                |
|---------------|---------|----------------------------------------------------------------------|-------------------|
|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 산업통상자원부 | - 정보공개서 전수조사, 가맹본부·가맹점 표본조사<br>(근거 : 가맹사업진흥법 제7조)<br>- 25개 세부업종으로 분류 | 3년 주기<br>(필요시 수시) |
| 프랜차이즈 (가맹점)조사 | 통계청     | - 가맹점 경영실태조사(승인통계)<br>- 16개 업종으로 분류 * 교육, 운송 등 제외                    | 매년                |
| 가맹사업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 - 전년 정보공개서 기반 조사·분석                                                  | 매년                |
| 외식업 경영실태조사    | 농림축산식품부 | - 외식기업 중 프랜차이즈 부문을 구분하여 주요결과 산출                                      | 매년                |



산업부(프랜차이즈 실태조사), 통계청(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 공정위(가맹사업 현황) 등에서 종합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나, 분류체계가 일관되지 않아 기관마다 수치가 다르고 의미도 낮다. 이에 따라 통계 지표로서의 공신력이 낮고 효과적인 정책 발굴에도 한계가 뚜렷하다.

협회는 이에 현재 특수분류 내 경제부문에 가맹사업이 추가되도록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특수분류로는 ‘로봇산업’, ‘물류산업’, ‘스포츠산업’, ‘저작권산업’, ‘환경산업’ 등 총 21개가 있다. 지식재산서비스산업(2014년 12월), 산림산업(2020년 12월) 등 유사한 최신 제정사례도 있다.

정 협회장은 “각종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산업분류가 정상화되면, 산업 특성에 맞는 조사와 지원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중장기적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참고2. 특수분류 유사 제정사례〉

### □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특수분류(2014년 12월 제정)

- 제정배경 : 지식재산분야가 다양화·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산업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분류체계 정립
- 추진방향 : 지식재산서비스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특수분류체계 정립, 범부처 협조 및 범부처 통계기반 구축
- 분류체계 : 지재산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산업발전을 염두에 둔 확장성까지 고려(대분류 7개, 중분류 13개, 소분류 15개)
- ▶ 프랜차이즈 산업과 마찬가지로 지식재산서비스산업도 특수분류 제정 이전 실태조사 등 통계작성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인지하고 특수분류로 추진한 사례

### □ 산림산업 특수분류(2020년 12월 제정)

- 제정배경 : 그간 산림분야는 영림업(1차산업), 제조·유통·가공(2차산업), 복지서비스(3차산업) 등 범위가 넓어 표준산업분류 연관분석에 한계 야기
- 추진방향 : 농림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내 산림산업 특수분류로 구분
- 분류체계 : 임산물 생산 및 재배를 중심으로 후방산업(투입재 산업)과 전방산업(가공/도소매/소비 및 서비스업/기타 지원서비스업) 간 가치사슬 구조로 분류(대분류 6개, 중분류 33개, 소분류 55개, 세분류 130개)
- ▶ 산림산업 역시 산업범위가 넓어 표준산업분류 적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수분류 체계로 구조화하고 발전시킨 사례

## 합리적 법제도 환경 조성

두 번째로 협회는 가맹사업법, 가맹사업진흥법, 식품위생법, 자원재활용법 등 관련 법·제도에 산재한 독소조항들을 발굴해 선제적 개정을 추진한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맹본부 갑질의 프레임 속에 지난 수년간 무수히 많은 규제의 신설을 겪었다.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경험 의무화(1+1제)’와 같이 합리적 규제도 있었으나, ‘필수물품 공급가, 차액가맹금 정보공개서 기재’,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협의개시 의무화(발의중)’ 등 대부분이 본사를 갑질의 주체로 보고 도입된 규제들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100개 이상 브랜드만을 대상으로 한 ‘1회용컵 보증금제’,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입점제한할 수 있도록 한 ‘지역상권법’, 가맹점 지원을 원천적으



3월 출범 예정인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 홈페이지 초기 화면

로 배제하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도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보여준다.

이에 협회는 신설되는 규제 홍수에 대응하던 방어적 태도에서, 독소조항을 발굴하고 선제적 개정을 추진하는 적극적 태도로 전환한다. 정치적 환경도 기업활동을 함께 고려하는 분위기가 조성 중이고, 그간 상생 확산 등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도 주목받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대표적인 악법으로 꼽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폐지 활동은 본격적으로 전개 중이다. 또, 상생 지원 확산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프랜차이즈 상생인증제 도입, 가맹사업 서면실태조사 기준 구체화 등 지원 체계 마련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정 협회장은 “각종 신설·강화 규제 대응은 기존대로 하되, 이미 자리잡은 독소조항들까지도 적극 발굴해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큰 관심과 의견제시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업 발전 선도할 플랫폼 안착

마지막으로, 협회는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의 기반을 튼튼히 할 <프랜차이즈 종합지원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

<프랜차이즈 종합지원 플랫폼>은 협회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가맹사업 선진화를 위해 지난 수 년 간 구축해 온 종합 플랫폼이다.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에게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제공할 플랫폼 구축하고 운영해 산업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우선 목표는 가맹희망자, 즉 예비 창업자의 창업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한 곳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창업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전 과정의 모든 것을 플랫폼 안에서 편리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올바른 창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업 아이템 검색 ▲상권분석 정보 ▲개인 맞춤형 컨설팅 ▲비대면 창업상담 ▲점포 현장실습 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포괄하는 가맹사업자의 역량 강화와 사업지원도 주요 목표다. 홍보관을 통해 예비 창업자와의 온·오프라인 만남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교육(법정·직무교육), 오픈마켓(점포·기자재 등 거래), 업계·해외 동향 등 정보제공 등을 제공한다.

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초기 많은 본사들은 예비 창업자 대상 홍보 및 상담채널을 잃고, 예비 창업자들도 제대로 된 창업정보를 접하기 어려워 산업의 존폐까지 우려되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대다수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비대면 주문·결제,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화상회의 같은 비대면 경제활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종합지원 플랫폼을 출범시켜 안정적인 창업 활성화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KFI**



# “가맹사업법이 ‘전가의 보도’인가” ‘가맹지사 보호’ 가맹사업법 개정안 논란

“기존 법 체계로 구제·처벌 충분

가맹본부-가맹점 권리·의무 규정 취지와 불합치”

WRITE | 김동하 기자



2021년 센수학 가맹지사들이 계약종료 방침에 항의하는 시위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해당 건에 대해 가맹사업법 대상이 아니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사진 = 센수학지사협의회)

가맹지사 보호를 위한 최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 일명 ‘가맹지사 보호법’을 우려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23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지사에게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가맹지사의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 사전 통지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보호조치를 규정

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의 경우, 법적 보호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10년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법 제13조 등의 대상을 가맹지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시 가맹본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가맹지사의 갱신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사진 = 국회)

가맹지사 보호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일부 업종에서 논란이 불거지면서 힘을 얻었다. 민 의원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피해 사례를 밝히고 공정위에 재발방지와 보호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가맹지사는 가맹사업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고, 민 의원은 이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했다. 지난 2월 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당 대표실에서 해당 브랜드의 상생 꽃달기 행사를 열고 가맹지사 문제 해소를 약속하기도 했다.

## ◇ “가맹지사 보호를 왜 가맹사업법에서 찾나”

그러나, 업계에서는 가맹지역본부, 즉 가맹지사의 개념이 가맹사업법에 있기는 하지만, 보호대상까지 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분위기다.

먼저,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권리·의무, 범위만시 처벌사항 등을 규정하는 법인데, 극소수 사례를 전체로 확대해 가맹지사에게 가맹점주와 동일한 권리를 주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지사는 일반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초기나 확장기 등 특정 시기나 또는 사업 효

율화 등의 특정 목적으로 도입한다”면서 “계약 여부가 전적으로 본부의 필요성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계약 갱신에서도 본사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사는 본사에는 없지만 가맹점주에는 갑인 중간적 지위로, 다른 브랜드에서는 오히려 가맹지사의 갑질 논란도 있다”면서 “표준적인 계약 형태가 없고 지사의 역할도 천차만별인데, 과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 본사와 점주의 경영애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호 규정만 더하고, 가맹지사의 의무는 규정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각종 법적 의무를 다하는 본사와 점주를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가맹지사는 사업 및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 큰데, 개정안 통과시 본사는 굳이 지사를 도입해 골치아플 필요가 없다”면서 “계약 종료, 도입 철회 등이 가속화 될 것이며, 일부 브랜드의 사업운영, 가맹점 관리 등을 저해하거나, 수요 감소에 따른 선량한 가맹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사들의 경영난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아가 퀄리티 하락, 가맹점 확장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감소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 “기존 법 체계로 충분…과잉금지 원칙 위배”

기존의 공정거래법, 상법 등 관련 피해를 구제할 민·형사상 법 체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신규 입법이 헌법을 위배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헌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신규 입법은 기존의 법 체계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만 검토돼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미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 공정위 심결례(제2011-090, 제2012-022)에서 가맹지사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제재한 사례도 있다.

또, 상법 제87조~제92조의3(제5장 대리상)의 법리를 유추적용해 가맹지사의 피해를 구제할 판례(서울고등법원 2014나2031941)도 존재한다.

상법 제87조는 ‘대리상’을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제92조의 2에서는 대리상으로 인해 계약종료 후에도 이득을 얻고 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위 판례는 “원고 가맹지사는 상법상 대리상으로, 본사가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지사가 모집한

가맹점이 남아 있어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대리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법 제92조의 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 본사 관계자는 “구제 사례도 있고, 부족하다면 하도급법 등 본사와 지사의 관계와 더욱 밀접한 법 체계를 개정하면 될 것인데, 본사 규제로 넘쳐나는 가맹사업법에 지사 보호까지 넣는 것이 과연 맞느냐”면서 “이러다 가맹본부와 연관된 모든 업종이 가맹사업법 대상이 될 것”이라고 푸념했다.

#### ◇ “논란 사례들도 실상은 다르다” 재조명도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부각됐던 갑질 논란도 실상과 다르다는 반박도 나온다.

교육업종의 A 가맹본부 사례는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종료·갱신거절로 알려진 사례다. 그러나, A 본부는 2021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사업 내부 사정이 좋지 않아 이미 2020년 4월에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고 신규 가맹점 모집을 종료하기로 한 상태였다.

한 업계 전문가는 “본사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방향을 결정할 헌법상 기업경영의 자유가 있다”면서 “가맹계약은 당연히 가맹사업법에 따라 이행해야 하지만, 경영악화로 가맹지사를 줄이는 것까지 지탄받는 것은 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브랜드가 진행한 지사 모집 설명회(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지난해 10월 제53회 IFS 프랜차이즈서울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세탁업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가맹사업법 주무부처인 공정위 또한 당시 “가맹점 지원 축소에 대한 부분은 별도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가맹지사 계약갱신 거절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세탁업종의 B 가맹본부 사례도 마찬가지다. 갑질 내용 중 하나로 지목된 비용 문제의 경우도 중요한 사실이 누락됐다는 지적이다.

B 본부의 지사는 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세탁장비로 세탁물을 처리하는데, 임대료로 정액이 아닌 매출액 대비 2.3%를 지급하고, 가맹비도 연매출의 10.6%를

지급한다. 이에 대해 장비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률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노예계약이라고 폭로된 바 있다.

그러나, B 브랜드에서 지사의 역할은 가맹점에 맡겨진 세탁물을 수거해 대량으로 세탁한 후 배송하는 단순한 형태다. 가맹점 모집, 관리, 소비자 응대 등은 본사와 가맹점이 수행한다. 일반적 개념의 지사와는 조금 다르다.

특히, 폭로 업체는 단순한 사업형태로 본사와 가맹점이 파낸 세탁물 수량에 의존해 14년간 총 218억원(연간 15.6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장비가 노후되거나 고장날 경우 본사가 교체를 부담하는 사실도 역시 알려지지 않았다. 심지어 해당 계약은 10년 전 내용이고 현재는 사용되지 않으며, 현 계약도 꾸준히 갱신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의구심마저 부르고 있다.

한 본사 관계자는 “극소수의 사례로 가맹점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자는 개정안은 부작용이 크고 실제 논란도 반박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지금도 열심히 뛰고 있는 영세 가맹본부와 지사, 가맹점들에 오히려 피해를 끼칠까 우려되며, 정부와 국회에서는 부디 가맹본부가 만약의 근원이라는 색안경을 벗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KFN**



# “창업열풍 올해도 계속” 한국프랜차이즈協, 제54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3.30~4.1 개최

WRITE | 정혜연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 중앙회와 지회가 올해 전국에서 총 4회의 창업 박람회를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 창업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협회가 주최하고 국내 최대 MICE 기업 코엑스(Coex)와 전시업계 글로벌 1위 리드엑시비전스 코리아(RX

Korea)가 공동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는 올해 서울 코엑스에서 제54회(3.30~4.1), 제55회(10.5~7) 총 2회 개최된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뢰도와 안정성이 각광받으면서, IFS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도 역대 최대 참가업체와 창업 희망자들이 대거



몰린 바 있다. 올해도 하반기 본격적인 경기 회복 국면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박람회를 통해 향후 창업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창업 희망자들이 복새통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첫 주자인 '2023 제54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는 파사로운 봄바람을 타고 3월 30일(목)부터 4월 1일(토)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C·D홀에서 250개 브랜드 550개 부스의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창업 트렌드의 한 축으로 성장한 무인·자동화 창업, 배달·포장 전문점 등을 필두로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등 전 업종의 우수·유망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한다.

## 2023년 서울, 대구, 부산서 국내 최대 규모 박람회 총 4회 개최 예정

특히, '원스톱 창업쇼핑' 지원 강화를 위해 주방, 설비, 결제, 인테리어 등 필수 협력업체들을 '리테일 특별관'으로 선보이고,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세미나, 우수 브랜드가 줄줄이 포진한 레드카펫존, 최적의 브랜드를 찾아 주는 비즈니스매칭 등 고유의 운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참관객 편의를 극대화한다.

또 수도권에 이어 가장 프랜차이즈 창업이 활성화된 대구와 부산에서는 협회 대구경북지회(지회장 김병철·이하 대경지회), 부산울산경남지회(지회장 오몽석·이하 부울경지회)가 각각 단독으로 지역 최대 규모의 창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대경지회는 5월 11~13일 대구 엑스코 2홀에서 '2023 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대구'를, 부울경지회는 11월 23~25일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3홀에서 '2023 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부산'을 개최한다.

대구, 부산 박람회 또한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지난해에 수많은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바 있다. 올해 더 많은 브랜드와 협력업체를 발굴해 연중 지역 창업 열풍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협회와 코엑스, 리드엑시비전스는 'IFS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시 박람회 기간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대경지회와 부울경지회도 '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대구·부산' 통합 홈페이지에서 무료입장이 가능한 사전등록을 진행 중이다. **KFN**



# 한국프랜차이즈協, 2023년 대의원 워크숍 및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코로나19 엔데믹 시대 산업 재도약 이끌 체계 정비 및 중점 추진사업 논의

WRITE | 김은영 기자



2023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현식 협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올해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막에 발맞춰, 산업의 체질 개선과 재도약을 준비하고 회원들의 경영회복을 지원해 나간다.

협회는 지난 2월 15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2023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산업은 본격적인 코로나19 엔데믹에도 3고 현상과 경기침체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재도약의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중점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한 사업과 활동을 통해 업계의 체질 개선과 재도약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70여명의 대의원들은 2022년 사업결산과 2023년 사업예산안, 협회 정관 변경안 등을 의결했다. 또, 지난해 사업실적과 올해 사업계획, 중장기 중점 추진사업 등 업무보고도 진행됐다.

주요 안건 및 사업계획으로는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 출범(3월중) ▲가맹사업법 개정 등 정책대응 강화 ▲식품 위생교육 전문기관 지정 ▲표준사업분류 가맹사업 추가 등 4대 비전이 제시됐다.

또 ▲제11~12기 KFCEO 교육과정 ▲고용노동부 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등 교육사업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2회 개최(서울 코엑스) ▲회원사 소통을 위한 <프랜차이즈 월드 발간>(연 6회) ▲신년회·송년회, 임원연찬회의 등 회원사 소통 프로그램 ▲회원사 복지 강화를 위한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사업 등도 주요 사업계획으로 보고됐다.

특히, 제8대 협회장 임기(’23~’25) 개시에 발맞춰 분과위원회 체제를 개편하고 회원사 지원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친목 성격과 목적사업 성격으로 위원회들을 재정비하고, 이슈 대응도를 높이기 위한 업종별 T/F도 구성한다.

한편, 협회는 대의원총회에 앞서 2월 8~9일 더욱 실질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논의하기 위한 대의원 워크숍을 1박 2일

로 개최했다.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그래미(회장 남종현) 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정현식 협회장, 최성수 수석부회장 등 협회 대의원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대의원들은 워크숍을 통해 협회와 산업 발전을 위해 협회가 수행해야 할 사업 또는 정책방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벌였다. 특히, 기존 협회 활동에 대한 가감없는 건전한 비판과 새 사업계획을 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조별토론한 후 정리해 각자 발표하는 등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정 협회장은 “먼 곳까지 와서 귀한 시간 내어 주신 대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많은 의견 적극



협회 대의원들이 2023년 대의원워크숍에서 사업계획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검토하여 모든 회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77]**

## 2023년 신임 협회 임원 명단

| 거래처그룹2명 | 협회대표 | 회사명         | 브랜드명             | 업태  |
|---------|------|-------------|------------------|-----|
| 부회장     | 임영서  | (주)죽이야기     | 죽이야기, 육회이야기      | 외식업 |
| 부회장     | 임상진  | (주)데일리비어    | 생활맥주, 생활커피, 생활치킨 | 외식업 |
| 부회장     | 나명석  | (주)웰빙푸드     | 자담치킨             | 외식업 |
| 이사      | 박수암  | 주식회사 에스앤씨세인 | 더벤티              | 외식업 |
| 이사      | 김진성  | 주식회사 컴포즈커피  | 컴포즈커피            | 외식업 |
| 이사      | 이호성  | 성백F&S       | 33떡볶이            | 외식업 |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8대 위원회

| No | 위원회명          | 목적 및 역할                                   | 위원장                    |
|----|---------------|-------------------------------------------|------------------------|
| 1  | 운영·윤리위원회      | 협회와 위원회 간 활동 조정<br>지원 및 회원사의 윤리 강화        | 배승찬 (주)가업에프씨 대표이사      |
| 2  | 커뮤니케이션위원회     | 협회와 정부, 국회, 학계,<br>언론과의 대응 및 조율           | 임영서 (주)죽이야기 대표이사       |
| 3  | 교육위원회         | 프랜차이즈교육 및 포럼을 통한<br>산업발전의 토대 마련           | 손석우 (주)섬김과나눔 대표이사      |
| 4  | 글로벌진출위원회      | 프랜차이즈업계 글로벌 진출을 위한<br>정보 공유 및 발전 연구       | 이종근 (주)에스엘에프앤비 전무이사    |
| 5  | 박람회위원회        |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 발전 및<br>참가 업체 유지              | 김성윤 (주)에쓰와이프랜차이즈 대표이사  |
| 6  | 사회봉사위원회       |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위기 극복에 기여                     | 선임 중                   |
| 7  | 서비스분과위원회      | 서비스업종 관련 업계 현황 공유 및 관련 규제<br>대응 전략 모색     | 신희성 (주)리맥스코리아 대표이사     |
| 8  | 협력분과위원회       | 협회 협력회원사들의<br>산업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 9  | 커피분과위원회(TF)   | 커피 관련 업계 현황 공유 및 관련 규제 대응 전략<br>모색        | 홍경호 (주)지앤푸드 회장         |
| 10 | 치킨분과위원회(TF)   | 치킨 관련 업계 현황 공유 및 관련 규제 대응 전략<br>모색        | 나명석 (주)웰빙푸드 대표이사       |
| 11 | 주류분과위원회(TF)   | 주류 관련 업계 현황 공유 및 관련 규제 대응 전략<br>모색        | 이호복 (주)인토외식산업 대표이사     |
| 12 | 대·중견기업위원회(TF) | 정책규제 대응 및 업계 이슈 관련 간담회 개최                 | 선임 중                   |
| 13 | 경조회           | 친목 및 교류를 통한 올바른<br>프랜차이즈 문화 조성            | 김광철 (주)굿프랜즈 대표이사       |
| 14 | 여성회           | 여성CEO들의 힘을 모아<br>산업과 협회 발전에 기여            | 임미숙 (주)아로마글로벌 대표이사     |
| 15 | 청년강소회         | 강소기업을 추구하는 청년대표들이 산업과 협회<br>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 | 이영채 (주)지호 대표이사         |
| 16 | 우정회           | 운동을 통한 산업인의 스킨십과<br>협회 회원간의 친선 도모         | 김태환 (주)태풍에프앤비 대표이사     |
| 17 | 산악회           | 산상토론회를 통한 친교 강화 및<br>회원사간 단합 도모           | 정민섭 (주)워드컴퍼니에이치앤비 대표이사 |



# 한국프랜차이즈協, 〈제5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산업 위상 제고 및 산업인들 사기 진작

신년하례식 연계로 회원사 단합의 장 마련

WRITE | 김동하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2월 15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제5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이하 산업인의 날)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신년 하례식을 개최했다.

산업인의 날은 지난 2018년 협회가 120조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120만 산업인들의 사기 진작과 격려를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특히, 이날 행사는 2023년 신년 하례식과 함께 연계 개최돼 산업인들의 단합과 소통의 장으로서 의미를 더했다.

정현식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프랜차이즈 산

업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3고 현상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 왔고,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타 산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협회도 3월 출범 예정인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 등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협회 발전 공로자 시상 등 의미 더해

이어진 시상 순서에서는 감사의 뜻을 담아 산업과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산업인들에게 정부 표창과 협회장 표창 및 감사패가 수여됐다.

정부 표창은 산업부장관 표창 ▲채경영 (주)이노티 대표, 중기부장관 표창(기업) ▲(주)하루돈(대표 한덕희) ▲(주)바로온(대표 김경구) ▲(주)벌크커피(대표 이윤식) ▲(주)동행푸드(대표 이은화), 식약처장 표창 ▲김선식 (주)에이에프씨코리아 대표 ▲김성윤 (주)에쓰와이프랜차이즈 대표 ▲한덕희 (주)하루돈 대표 등 총 8점이 대표자 개인 및 기업에 수여됐다.

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표창은 ▲이영덕 (주)한솔 회장 ▲임미숙 (주)아로마글로벌 대표 ▲전민호 (주)외식전문기업제이케이 대표 등에게 11점이 수여됐

고 ▲김영기 (주)쿠우쿠우 회장 ▲이성훈 세종대학교 교수 등 4명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참석자들은 수상자들에게 진심어린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수상의 기쁨을 함께 했다. 또, 이후 올해 첫 협회 전체 공식행사인 신년 하례식을 통해 식사와 공연 등을 즐기며 덕담과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현식 협회장 등 협회 회원사들과 고문단, 업계·학계 관계자, KFCEO 총동문회 등 총 130명이 참석했다. **KFN**

제5회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수상자 명단

| 구분  |                | 규모 | 표창명                                        | 수상자                                                                            |
|-----|----------------|----|--------------------------------------------|--------------------------------------------------------------------------------|
| 정부  | 산업부장관          | 1  | Hot-Trend Franchisor<br>트렌드를 이끈 FC기업가      | (주)이노티(이노티안경) 채경영 대표                                                           |
|     | 중기부장관          | 4  | 상생 우수 기업                                   | (주)하루돈(하루엔스쿠) 한덕희 대표                                                           |
|     |                |    |                                            | (주)바로온(바로온셰프) 김경구 대표                                                           |
|     |                |    |                                            | (주)벌크커피(벌크커피) 이윤식 대표                                                           |
|     |                |    |                                            | (주)동행푸드(분식살롱) 이은화 대표                                                           |
|     | 식약처장<br>(단체표창) | 3  | Food Safety Franchisor<br>식품안전 FC기업가       | (주)에이에프씨코리아(아주커) 김선식 대표<br>(주)에쓰와이프랜차이즈(이백장돈가스) 김성윤 대표<br>(주)하루돈(하루엔스쿠) 한덕희 대표 |
| 협회장 | 국내 가맹 본부       | 1  | Proud senior Franchisor<br>자랑스러운 시니어 FC기업가 | (주)한솔(한솔) 이영덕 회장                                                               |
|     |                | 1  | The Best Franchisor<br>최고의 FC기업가           | (주)아로마글로벌(양키캔들) 임미숙 대표                                                         |
|     |                | 1  | Creative Young Franchisor<br>창의·혁신 청년기업가   | (주)외식전문기업제이케이<br>(구브라고 숯불두마리치킨) 전민호 대표                                         |
|     | 해외 진출          | 1  | Golbal Franchise Award<br>글로벌 프랜차이즈        | (주)피슈앤프랜씨 (피슈 마라홍탕) 김정현 대표                                                     |
|     | 파트너            | 2  | Best Franchise Partner<br>우수 협력 파트너        | 나이스지니데이터 정선동 대표*                                                               |
|     |                |    |                                            | 하렉스인포텍 박경양 대표                                                                  |
|     | 사업 참여          | 2  | Leading Franchisor<br>선도 FC 기업가            | (주)마세다린(가마로강정) 정태환 대표                                                          |
|     |                |    |                                            | (주)인생닭강정(인생닭강정) 허진영 대표                                                         |
|     | 전문가            | 1  | Achievement Award<br>공로상                   |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성백순 학회장                                                              |
|     |                | 2  | Best performer<br>우수 전문가                   | 한국창업트렌드연구소 이흥구 소장<br>노무법인 씨앤비 이금구 대표                                           |
| 관계자 | 4              | 4  | Appreciation Plaque<br>감사패                 | (주)빅토리어스(최고당 돈가스) 김금자 회장                                                       |
|     |                |    |                                            | (주)쿠우쿠우(쿠우쿠우) 김영기 회장                                                           |
|     |                |    |                                            | (주)태풍에프앤비(부두막치킨) 김태환 대표                                                        |
|     |                |    |                                            | 세종대학교 이성훈 교수                                                                   |



# 〈제5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기념식



2023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분과위원장 위촉식



산업부장관 표창 - 채경영 (주)이노티 대표



중기부장관 표창 - 한덕희 (주)하루돈 대표, 김경구 (주)바로는 대표, 이은화 (주)동행푸드 대표, 이윤식 (주)별크커피 대표



식약처장 표창 - 김선식 (주)에이애프씨코리아 대표, 김성운 (주)에쓰와이프랜차이즈 대표, 한덕희 (주)하루돈 대표



자랑스러운 시니어FC기업가 - 이명덕 (주)한솔 회장



최고의 FC기업가 - 임미숙 (주)아로마글로벌 대표



창의·혁신 청년기업가 - 전민호 (주)와식전문기업제이케이 대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표창 - 김정현 (주)피슈애프앤씨 대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표창 - 정선동 나이스지니데이터 대표, 박영양 하렉스인포텍 대표, 정태환 (주)마세다린 대표, 허진영 (주)인생닭강정 대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표창 - 이금구 노무법인 씨앤비 대표, 성백순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이흥구 한국창업트렌드연구소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감사패 - 김영기 (주)쿠우쿠우 회장, 김금자 (주)빅토리어스 회장, 이성훈 세종대학교 교수, 김태환 (주)태풍에프앤비 대표



제5회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기념식 참석자들이 내빈 소개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한국프랜차이즈協 공식 ‘제11기 KFCEO 교육과정’ 3.20 개강 본사 대표 등 신입 원우 모집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필수역량 강화할 업계 최고 CEO과정  
성공 CEO 토크쇼 등 현장성 최대화

WRITE | 김은영 기자



이경희 KFCEO 과정 주임교수(부자비즈 소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 공식 CEO 과정인 ‘제11기 KFCEO(K-프랜차이즈 CEO) 교육과정’(주임교수 이경희 부자비즈 소장)이 3월 20일 개강을 앞두고 11기 신입 원우를 모집하고 있다.

제11기 과정은 〈프랜차이즈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에서 3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14주간 매주 월요일 15~18시에 진행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도약의 시기를

맞아 실질적인 리더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UN SDGs 협회 글로벌지속가능한 브랜드 40에 선정되며 ESG경영을 선도하는 ㈜한솔의 이영덕 회장 ▲소상공인으로 출발해 매출 2천억원대의 아시아 대표 뷰티회사를 키워낸 준오해어의 강운선 대표 ▲코로나 19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주점업계 신화를 쓴 역전할머니맥주 소종근 전 대표 ▲무항생제 닭 사용 등 대표적인 그린 브랜드로 성장한 자담치킨 나명석 회장 등 기라성같은 성공 CEO들이 원우들과 직접 소통한다.

또, ▲국수나무 성공에 이어, MZ세대 타깃 신규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런칭한 미도인 정민섭 대표 ▲레스토랑, 콘텐츠를, 제조를 결합한 미래형 한식 사업 모델을 선도하는 나루가온 박효순 대표 ▲수제맥주 프랜차이즈 시장을 선도하는 생활맥주 임상진 대표 ▲짜먹는 죽간편식 등 새로운 간편 한식 문화를 만들고 있는 죽이야기 임영서 대표 ▲‘와바’로 세계맥주붐을 주도한 이효복 인토티식산업 대표 등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표하는 성공 CEO들도 성공 노하우를 직접 전수한다.



“수료생은 KFCEO 총동문회는 물론,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을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으로 활동할 기회가 부여된다.”

이밖에 ▲식품위생 종합관리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 벨킨스 함지훈 대표 ▲푸드테크 성공신화에 이어, 장부대장으로 배달업계 플랫폼 신화에 도전하는 푸드노트 강병태 대표와 ▲농산물 전처리 전문 스타트업 베지스타 한형석 대표의 특강과 토크쇼도 진행된다.

또, 기업 현장 탐방 프로그램으로 기업에프앤비 사육을 방문하고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 세계적인 최첨단 로스팅 시설을 갖춘 이디야 드림팩토리, 지역 전통식품의 산업화를 이끌고 있는 신세경 대표의 서해수산푸드를 탐방한다. 수료생은 KFCEO 총동문회는 물론,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을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으로 활동할 기회가 부여된다.

수강 대상은 가맹본부를 운영 중인 대표 또는 2~3세 경영자, 본사 창업 희망자 또는 협력사 대표 등이다. 협회 회원, 원우 추천 등의 경우 수강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KFCEO 총동문회(회장 전병진 ㈜엔터라인 회장)는 지난 2월 3일 김영기 8기 원우회장(㈜쿠우쿠우 회장)의 협조로 쿠우쿠우 보라매점에서 2023년 총동문회 신년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의 KFCEO 동문들은 친목을 나누고 올 한해 성공을 다짐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KFN**





# 전기료·난방비 급등에 자영업자 99% '부담'

정부 지원서 소상공인 제외...에너지 지원 법제화 필요

WRITE | 정혜연 기자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하락에 이어 매장을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전기료와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부담이 커졌다.

정부는 지난해 말 올해 1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을 인상했다. 가스요금은 전기요금과 달리 혹한기 서민 부담을 고려해 올해 2분기로 유예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도 지난해 인상분이 이미 반영된 가스요금이 1년 사이 30% 넘게 오르면서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부파됐다.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주택용 열요금은 Mcal당 89.88원,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당 19.69원으로 전년보다 37.8%, 38.4% 각각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5·7·10월 4차례 걸쳐 메가줄당 5.47원, 열 요금은 지난해 3월말 65.23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24.65원 올랐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업무난방용 가

스 도매요금 인상률은 57.6%로 주택용 인상률(42.3%)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1월 전기요금 또한 전년 대비 29.5% 올랐다.

이같은 난방비, 전기료 대란으로 인해 자영업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업무용 도시가스 요금은 주택용보다 많이 오르는 등 영업에 필수인 고정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서다. 일반 가정처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노력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직격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1800억원 규모 난방비 지원 대책을 내놔지만, 소상공인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자영업자 50%, 난방비 30% 이상 급등

먼저 난방비 인상은 겨울 한파에 자영업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숙박·목욕 시설 등은 부담이 더욱 컸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월 30일~2월 1일 소상공인 1811명



을 대상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사업장 운영에서 난방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99.0%에 달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80.4%였다. 숙박업의 98.5%, 옥탕업의 90.0%가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동월 대비 매출은 응답자의 85.1%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반면 난방비는 96.9%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난방비 증가 수준은 10~30%가 4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50%(31.3%), 50~70%(10.4%) 등 순이었다.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응답도 6.4%에 달했다.

전기료와 가스비 인상도 부담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PC방 같은 곳은 전기료가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뛰기도 했다”며 “임대료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전기료·가스비가 더 무섭다”고 말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A 대표는 “평소 30만~35만원 나오던 가스요금이 지난해 두배가 넘는 75만원이 나왔다”며 “가스와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손님이 줄어들 위험 부담을 안고 가격을 올리거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업원을 줄이는 방법까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서울 종로구서 백반집을 운영하는 B 대표도 “평소에 30만원 밖에 나오지 않는 가스비가 74만원으로 늘었다”며 “보통 매출의 40%가 원가인데 지금은 절반이 훌쩍 넘었다. 야채 가격마저 올라 고통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 체감 물가 상승...실질 사업소득은 줄어

이러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경제고통지수 8.8(1월)은 같은 달 기준역대 최고 기록이다.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

(3.6%)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5.2%)을 더한 값이다.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내렸지만 물가 상승률은 1.6% 올랐다.

물가 상승률은 2021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22개월째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인 2.0%를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 상승률은 ‘30~40%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의 실질 사업소득도 감소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월평균 명목 근로소득은 312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7.9% 증가했다. 반면 자영업자의 명목 사업소득은 101만8000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증감 없이 제자리걸음이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4분기 실질 근로소득은 2.5% 늘었으나 실질 사업소득은 5% 줄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가스와 전기는 소상공인 영업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긴급 에너지 바우처 등을 편성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에너지 급등 상황에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이와 관련해 “지난 3년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힘들게 버텼는데 이제는 식재료비에 가스비, 전기료, 난방비 등의 상승이 문제다”라며 “프랜차이즈를 산업분류화하는 한편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력 요청했다. **KFN**



# 한국프랜차이즈協, ‘2023 WFC 라스베이거스 총회’ 한국 대표로 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프랜차이즈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단합 기여

WRITE | 김은영 기자



2월 26일 2023 상반기 WFC 라스베이거스총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프랜차이즈의 종주국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WFC(세계프랜차이즈협의회) 정기 총회에 참석, 'K-프랜차이즈'의 위상을 높이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프랜차이즈 업계의 노력에 동참했다.

협회는 2월 26일~3월 1일 (현지 기준) 미국 프랜차이즈 협회(IFA)가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개최한 '2023 상반기 WFC 정기 총회'에 정현식 협회장, 박호진 사무총장이 참석해 모든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총회는 프랜차이즈의 발상지이자 꿈의 무대인 프랜차이즈 종주국 미국에서 열려 큰 관심을 모았다. 정 협회장 등은 한국을 대표해 각 회원국들의 경영환경과 법·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맥도널드 대표 등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한 컨퍼런스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글로벌 산업의 재도약 방안을 모색하고, 30여개 국가 대표단과 네트워킹 행사에서 교류를 증진하고 상호진출과 공동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협회는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 국가인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총회에 참가했다”면서 “올해 글로벌 프랜차이즈 산업의 재도약을 K-프랜차이즈가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94년 설립된 WFC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멕시코, 호주 등 전세계 48개 국가 지역 프랜차이즈 협회를 회원국으로 두고,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협회는 2008년 WFC 정회원 가입 이후 매년 총회에 참석해 'K-프랜차이즈' 위상 제고에 기여해 왔다. **KFN**

# 한국프랜차이즈協, 2023년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교육 협약기업 모집

중소 전문인력 확보 및 재직자 역량 강화 무료교육...“코로나19 시대 필수 역량 확보 초점”

WRITE | 정혜연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협회는 프랜차이즈 분야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연평균 200여개 기업 재직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과정’은 분야별 단체·기관 등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협회는 프랜차이즈 분야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연평균 200여개 기업 재직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와 업계 인력난 등 역량강화 지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면과 비대면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교육으로 129개사 57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성과를 남겼다.

올해 교육과정은 경기 회복 전망을 기반으로 총 660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17개 과정 33회차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비대면 사업모델 개

발·관리, 가맹점 상생지원·소통, 트렌드 파악 및 연구개발 등 필요한 역량이 크게 변화하면서, 중소기업 가맹본부들의 인력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더욱 발전시켰다.

▲가맹점 관리(슈퍼바이저 LSM·가맹점CS, 위생·안전, 노무 관리, 상생·분쟁예방) ▲기획·개발(상권분석 기초·심화, 사업성분석, 경영기획) ▲계약·영업(가맹영업, 가맹계약) ▲홍보·마케팅(브랜드·마케팅) ▲해외진출(해외진출실무, 글로벌시장분석) 등 가맹본부에 필요한 전 분야를 대상으로 공인된 전문 강사진이 심도 깊은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지난해 요구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정보공개서 관리, 해외시장 리스크 관리, 매장 관리 등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더욱 강화하고, 슈퍼바이저 가맹점 관리 등의 경우 기초과정과 심화 과정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대응도를 높였다.

교육 희망 기업은 협회 교육원 홈페이지(<http://www.edukfa.or.kr>)에서 협약서를 다운받아 날인 후 제출해 협약을 체결하면 된다. 단, 고용보험 납입 사업장만 가능하며, 대표자 교육 희망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급여형 대표자만 가능하다. 네이버에서 <프랜차이즈 재직자 교육>으로 검색해도 교육원에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수강 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교육은 서울 강서구 SBA 국제유통센터 교육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서 1~2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1개 기업당 신청자가 20명을 초과할 경우 출장 교육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교육사업팀(mykim@ikfa.or.kr, 02-3471-8135~8 내선 2)으로 문의하면 된다. **KFN**



## 한국프랜차이즈協, 회원사 가맹점 2023년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지원

서류절차 없이 전용 페이지로 간편 가입...“풍수해 피해시 최대 1억원까지 보상”

WRITE | 김동하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매년 반복되는 태풍, 폭우, 대설 등 회원사 가맹점의 풍수해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2023년 풍수해보험 무료가입 지원사업을 연중 상시 전개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약 70~91%)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메리츠화재 등 시중 7개 보험사(23년 3월 기준)가 판매사로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연초 다수 보험사들과 계약 체결 등을 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넥솔(대표 손성일, 이춘우), 메리츠화재, 제로페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정부·지자체 지원분을 제외한 자기부담금 차액을 올해 지원 중이다.

이를 통해 회원사 가맹점은 소상공인이기만 하면 올해 가입비 부담 없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가입완료부터 1년으로, 피해 발생 시 상가 및 공장, 또는 시설, 집기 등에 대해 지역별, 피해규모 별로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협회는 넥솔과 함께 협회 회원사 가맹점 전용 간편 가입페이지를 개설해 복잡한 보험가입 절차를 최대한 단순화했다. 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경우 사업자 번호와 간단한 기본정보 몇 가지를 선택하면 몇 분 만에 가입신청이 완료되며, 이후 상담전화를 통해 절차를 최종 마무리짓고 가입이 완료된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회원사 가맹점의 풍수해 보험 가입을 최대한 확산시켜 풍수해 피해 발생시 복구



를 돕고자 무료가입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간편 가입페이지로 가입절차를 단순화한 만큼 많은 회원사의 가맹점 안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가맹점 풍수해 보험 무료가입을 안내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ikfa.or.kr>)를 참고하거나, 협회 정책홍보팀(02-3471-8135~8 내선 5, [lsyg0627@ikfa.or.kr](mailto:lsyg0627@ikfa.or.kr)) 문의하면 된다. **[KFN]**



## 배민 배달료, 2월부터 ‘거리 기준으로 책정’ 개편

거리별로 배달팁 책정...500m당 최대 1천500원까지

WRITE | 김은영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거리별로 배달팁을 책정할 수 있도록 배달료 기준을 2월 1일부터 개편했다. 각 음식점들은 지금껏 행정동 단위로 배달료(배달팁)를 설정할 수 있었는데, 거리별로 배달팁을 매길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1월 전까지는 행정동 단위로만 배달팁을 설정하게 돼 있어 업주들이 실제 거리별 배달팁을 가게 소개나 전화로 별도 안내해야 했다. 또 1년마다 행정동이 업데이트되다 보니 행정동이 변경될 경우 정확한 배달팁 설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런 내용을 '배민의식업광장'에 공지했다. 거리별 배달팁 적용 대상은 울트라콜, 오픈리스트, 파워콜 등 배민 광고를 이용중인 업체다.

거리별 배달팁은 고객 주소지와 가게 실주소의 직선 거리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각 업체에서는 100m당 100~300원을 설정하거나 500m당 최대 1500원까지 정할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업체들의 건의를 바탕으로 이번 거리별 책정 기능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각 업체의 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추후 배달팁 기준을 행정동 대신 거리로 완전히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배달팁 기준이 거리로 바뀌게 되면 집과 가깝지만 행정동이 다른 음식



점에서 주문하는 경우에는 배달료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같은 동네에 있지만 거리가 먼 음식점의 배달료는 오히려 오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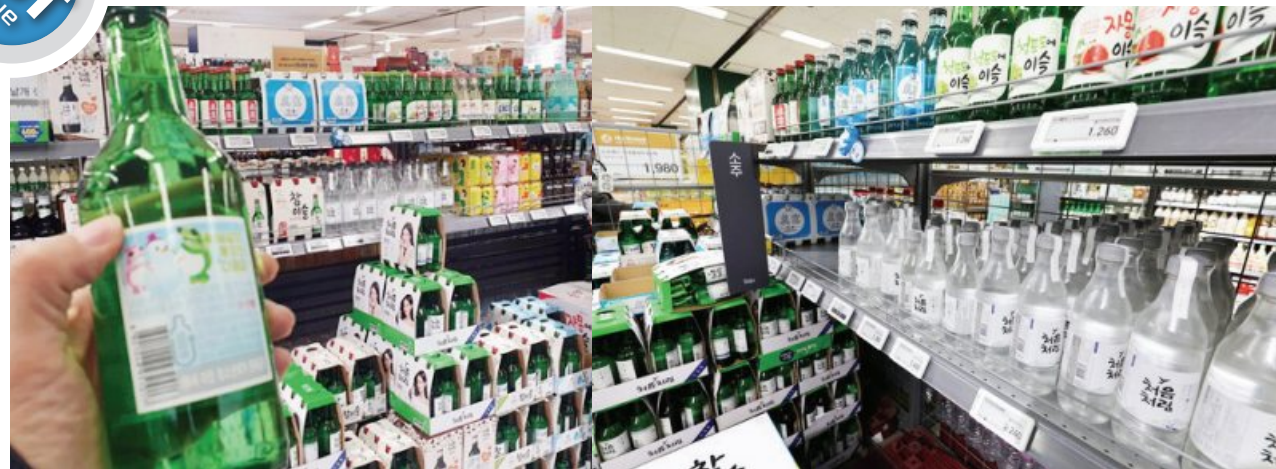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

서 일부 소비자들은 배달비를 올려 받기 위한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게 주소와 소비자 주소가 같은 행정동에 속하지만, 거리가 먼 경우에는 이전보다 배달팁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같은 행정동의 아파트이거나 혹은 같은 아파트일 경우에도 직선거리가 멀다면 배달팁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소비자단체연합회가 증식, 피자, 한식 업종에서 1월 3일 오후 3~6시와 14일 낮 12~3시 배달비를 조사한 결과 동일한 조건에서 배달앱, 배달서비스에 따라 배달비 차이가 나는 경우는 94.2%였다. 동일한 경우는 5.8%에 불과했다.

최고 배달비가 가장 많은 앱은 배달의민족(단건)이 31.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쿠팡이츠(12.6%), 요기요(8.2%) 순이었다. 최저 배달비가 많았던 앱은 쿠팡이츠가 19.9%, 배달의민족(묶음)이 19.6% 순이었다. **[KFN]**





## 소주·맥주값 인상 논란...정부 압박에 '동결'

주류업계 "당분간 인상 없다"...연말까지 같지는 미지수

WRITE | 정혜연 기자

소주값을 두고 주류업계는 속앓이를, 소비자와 자영업자는 시름에 빠졌다. 서민의 애환을 달래는 소주 가격이 60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소주와 맥주 가격은 지난해 일제히 올랐다. 그러다 올해 또 꿈틀대고 있다. 대한 주정판매에서 술의 원재료인 주정값을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올린 게 이번 소주값 인상에 결정타를 미쳤다. 여기에 병뚜껑 가격도 올랐다. 소주병 공급가도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이상 올랐다.

여기에 맥주값도 오른다. 기획재정부와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885.7원이 된다. 지난해보다 30.5원 올랐다. 주세 인상은 출고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하이트진로는 테라와 하이트 출고가를 각각 7.7%,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출고가를 8.2% 올렸다. 올해 주세 인상 폭이 지난해 인상 폭(L당 20.8원)보다 46.6% 더 큰 것을 고려하면 출고가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물론 주류업계는 공개적으로 가격 인상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민심이 요동을 치자 정부가 서둘러 가격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그런 품목(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업계 관계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면서 소주값 인상을 못 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하이트진로는 "국민과 소비자, 자영업자들께서 일부 혼란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 "가격 인상 요인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쉽지 않은 경제 상황에서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당분간 소주 출고가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비맥주, 롯데칠성음료도 4월 주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 조정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은 주류 출고가 인상 소식에 고민이 커졌다. 여러 식당가가 음식값을 인상하는 가운데 주류값까지 인상된다면 소비자의 발길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유다. 그렇다고 주류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가격 동결 방침이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류업계에서는 정부의 공개적 가격 인하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제정 등을 동원한 전방위 압박이 예상돼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가격 동결을 선언한 것이란 평가다. 그러면서도 '당분간'이란 단서에 시사하는 바가 담겨 있다고 설명한다.

한편 이미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판매되는 수입 주류 가격은 인상됐다. 평균 15.9% 올랐다. 기린 이치방시보리, 상하, 씨머스비, 크로넨버그 1664 블랑, 파울러너 등이다. 하이네켄코리아의 일부 제품 가격도 평균 9.5% 올랐다. 인상 배경은 수입 원가 및 국내 물류비 상승이다. **KFN**

## 식사비 한도 3만원서 5만원으로

이영 장관이 건의한 '김영란법' 한도 상향...기대 커지는 소상공인

WRITE | 김은영 기자

대통령실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외식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을 던진 이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물가 상승과 요식업 소상공인의 힘든 상황을 고려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지난 2월 15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김영란법 음식값을 5만원으로 상향하는 건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을 다녔으면 원재료 가격 상승 및 물가상승분을 김영란법 음식값이 따라가질 못해 3만원 이하 메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음식 질이 떨어진 경우 손님이 끊어지고 음식 질을 유지하려면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작년 5월 부임 후 외식 관련 협회장들과 회원사들의 호소가 지속되었고, 특히 작년 하반기 이자와 물가 상승 여파가 거세지면서 소비 둔화까지 이어져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더욱이 지난해 12월 말 30인 미만 8시간 초과 연장근무가 야당 반대로 일몰되고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가 준 상황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건비 상승까지 진행 중"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시행 8년차를 맞이하고 있다"며 "현재 물가가 법 시행 당시와 비교하면 크게 오른 점과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할 때 이번 논의가 좋은 결론으로 매듭지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이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입 당시 정해진 식사비 3만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나온 한도액을 참고했다. 이 한도액은 2003년에 만들어진

하지만 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도 가액 범위는 그대로인



탓에 법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 중 외식물가지수는 114.62(2020년=100)로 전년 동기 대비 7.7% 상승했다. 법이 시행된 2016년 1월과 비교하면 25.5%

가 오른 수준이다.

이에 따라 법으로 규정된 현재의 식사비 한도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게 소상공인계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도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월 26일 브리핑에서 김영란법 규정상 음식값 한도 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내수를 짐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외식업 종사 소상공인들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최저임금 상승,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이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에서 "지금이라도 김영란법의 적용가액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제한액 상향 조정을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타격을 입은 외식상권에 다시 활력이 들고 매출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정부와 국회의 김영란법 음식가액 한도 상향 조정을 지지한다"고 2월 28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권익위가 음식가액 5만원 인상을 반대한다면 이를 '민의를 정면으로 반하는 일'로 규정하고 법 개정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6년 9월 발효됐다. 금품가액으로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상한선을 설정해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당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포함해 수많은 외식업·소상공인 단체들이 해당 시행령에 반발했었다. **KFN**



## 고용노동부

##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4대 기초노동질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필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하는

# 1차 현장예방 점검의 날

2023.3.27.~3.31.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프랜차이즈가맹점의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적극지원합니다.

## 4대 기초노동질서 함께 지켜나가요

### ①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표준근로계약서' 검색

### ②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메인 배너 →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배포

### ③ 최저임금 준수

'23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우측 하단)

### ④ 임금체불 예방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KFA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 1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2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 3 휴일
- 4 연차유급휴가
-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
- 6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7 (한시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표준근로계약서' 검색 → 표준근로계약서  
임원시 500만원 이하 발주 부가(기간제 및 한시근로자에게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과태료 부과)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사업주는 근로자 채용  
시 반드시 임금과 근로  
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  
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한다. 임금체  
불 등 분쟁 발생시 근로  
계약서가 미작성됐을 경  
우 사업주에게 불리하  
게 적용될 소지가 크다.

### ②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아래 사항이 기재된  
임금명세서를 서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등 통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 1 이름,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2 임금지급일
- 3 임금총액
- 4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을 때는)  
연장시간수 포함한 계산방법
- 5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 임금항목별 금액
- 6 (임금항목별 금액이 총급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해당 항목별 계산방법
- 7 (임금명세서)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임금명세서 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메인 배너 →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임원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임금명세서  
교부

지난 2021년 11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이제 사업장 규모나 업  
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  
용자는 임금지급시 임  
금명세서를 서면(전자  
적 방식 포함) 근로자에  
게 제공해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임금, 상  
여금, 수당, 공제내역 등  
을 기록한 것으로, 추후  
임금체불 관련 분쟁시  
기초자료가 된다.

### ③ 최저임금 준수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2023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입니다. (2022년 9,160원)

#### 2023년 적용 최저임금

|     |                                     |
|-----|-------------------------------------|
| 시간급 | 9,620원                              |
| 월급  | 76,960원(월 8시간 기준)                   |
| 월급  | 2,010,580원<br>(주 40시간, 유급휴가 8시간 포함)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사용자: 반드시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우측 하단)  
임원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3. 최저임금 준수

2023년 최저임금은 전  
년 대비 5.0% 인상된  
시간급 9,620원으로 주  
40시간, 유급휴가 8시  
간 포함해 월급으로  
2,010,580원이다. 사업  
주는 임금 지급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로 최저임금  
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  
급하기로 해도 법적 효  
력이 없다.

### ④ 임금체불 예방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원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참고: 퇴직금 지급의무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한 후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 × 재직일수 × 365일'이며,  
-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 → 퇴직금 → 퇴직금계산기  
→ 나의 퇴직금 계산

임금 못 받았다고?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세요.  
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함  
②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함

## 4. 임금체불 예방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돼  
야 하고,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  
야 한다. 근로자에게 직  
접 지급해야 하며 친권  
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임  
금을 지급하는 것도 불  
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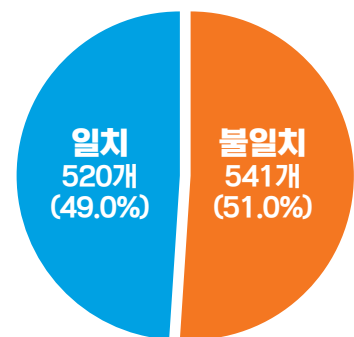
## 한국소비자원

## 음식점의 58.8%, 매장·배달 가격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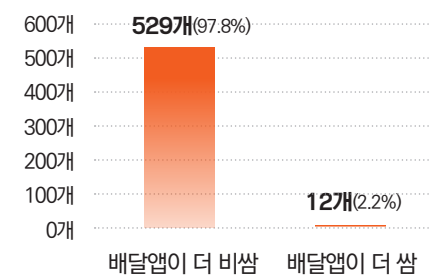
한국소비자원, 배달앱 대상 음식가격 비교 결과

## [매장과 배달앱 내 메뉴별 가격 차이 현황]

매장과 배달앱 내 가격 일치 여부



가격 불일치 유형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음식점의 58.8%가  
매장과 배달앱 내 가  
격이 다른 것으로 나

타났다. 또 소상공인 상당수는 배달앱의 중개수수료·광고비 인상  
시 음식 가격과 배달비를 올리는 등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  
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앱 입점 서울  
시 34개 음식점(총 1061개 메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다.  
이로 인해 배달앱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20개 음식점(58.8%)이 매장과 배달앱 내 가격을 다르  
게 책정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분식집이 12곳, 패스트푸드·치킨  
전문점이 8곳이었다. 이 중 13개 음식점(65.0%)은 배달앱 내 가  
격이 매장과 다르거나,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메뉴별로는 총 1061개 중 541개(51.0%)가 매장 가격과 배달앱 내  
가격이 일치하지 않았다. 그 중 529개(97.8%)는 배달앱이 매장보  
다 더 비쌌다. 매장보다 비싼 배달앱 메뉴(529개)의 평균 가격은  
6702원으로 매장 평균 가격(6081원)보다 10.2%(621원) 높았다.  
서울 시내의 배달비는 전반적으로 공공배달앱과 민간배달앱이 비  
슷한 수준이나, 일부 사례에서는 공공배달앱의 배달비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공공배달앱의 저렴한 수수료 혜택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소 한정적이었다.

### 중개수수료·광고비 등 배달 관련 비용 증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져

현재 배달비 수준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50.1%(977명)가 비싸다  
고 응답한 반면, 소상공인은 75.9%(763명)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배달비에 대해 소상공인이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3개 민간배달앱(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이 중개수수료  
를 인상하거나 광고비를 인정한 경우, 각각 49.4%와 45.8%의 소  
상공인이 음식 가격 또는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인상하거나 음식  
의 양을 줄였다고 응답했다. 배달 관련 비용의 증가가 소비자에게  
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앱 종합만족도에서는 조사대상 7개 배달앱이 소비자 종합만  
족도 평균 3.52점으로 조사됐다. 공공배달앱의 만족도가 민간배  
달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업체간 점수 차이는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만족도는 한국소비자원의 서비  
스평가 모델(KSEQ)을 기반으로 총 6개 부분을 평가해 3대 부문  
만족도(서비스품질, 서비스상품, 서비스체험)와 포괄적 만족도(전  
반적 만족, 기대 대비 만족, 이상 대비 만족)를 각각 50%로 반영,  
산출했다.

WRITE | 정혜연 기자

## 행정안전부

## 연매출 30억원 넘으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 못해

1인당 구매한도 월 70만원·보유한도 최대 150만원으로 축소



행정안전부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됐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  
도와 보유한도가 축소됐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 등록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일부 브

랜드 가맹점에서의 사용에 제한이 걸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지역사랑  
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행안부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 배경에는 대  
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간 법상에는 중  
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  
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라며 “이를 통해 지역사  
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  
록 하고,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  
다.

또한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도 축소됐다. 그간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  
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었다. 이로 인해 상품권을 대량으  
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이하, 보유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도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그간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경우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는데,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지원이  
시급한 경우 등에는 탄력적 대응의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10% 이내로 할인율을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  
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해 재난상황 등으  
로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분  
한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사  
랑상품권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에 주안  
점을 두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  
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  
가겠다”고 밝혔다.

WRITE | 김은영 기자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광고·판촉행사 비용 분담 시 유의사항

WRITE | **채경묵**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 CP가맹정보팀장

2022년 7월 5일부터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광고·판촉행사와 관련하여 개정된 가맹사업법령의 내용을 확인해 보고,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가맹종합지원센터〉

우선 개정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①사전 약정 또는 ②사전 동의 중 하나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각 절차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사전 약정

-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가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그 약정에 따라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약정은 가맹계약과는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 또한, 그 약정의 내용으로 ▶ 광고·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 ▶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주의 분담 한도를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 ② 사전 동의

-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점주 중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광고는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 동의한 가맹점주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가맹본부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POS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에서는 관련 내용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이하 ‘표준정보공개서’)는 ‘V. 9.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광고 및 판촉활동) 비용 분담 기준’ 항목에서 광고의 성격(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등) 및 판촉행사의 성격(할인행사, 증정행사, 팸플릿 제작 등)에 따라 구분하여 가맹본부 및 가맹점주의 비용부담 비율(정액으로 부담 시 그 액수)을 명시하고 있으며, 분담 절차도 기재하고 있다. 아래 표준정보공개서 해당 부분의 예시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예비 가맹점주는 위 항목을 살펴보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 동의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는지와 동의 비율(전체 가맹점주 중 광고는 50%, 판촉은 70%)을 지키는지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가맹계약서도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개정 가맹사업법령 설명자료(2022. 6.)」참조

##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OO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①      | 광고 성격②        | 부담비율            |                             | 분담 절차④                                                      | 비고⑤                                            |
|----------|---------------|-----------------|-----------------------------|-------------------------------------------------------------|------------------------------------------------|
|          |               | 본사부담③           | 가맹점부담                       |                                                             |                                                |
| 광고 전체 행사 | 상품광고          | 광고비의 50%        |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
|          | 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 광고비의 75%        |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                                                             |                                                |
|          | 가맹점 모집광고      | 전액 부담           | 없음                          |                                                             |                                                |
| 판촉 행사    | 할인행사          |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
|          | 증정행사          | 증정상품 출하가50%     | 증정상품 출하가 50%                | "                                                           | "                                              |

이하 생략

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여부나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가맹점주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광고·판촉행사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로는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광고·판촉행사 중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해당 광고·판촉행사 별로 스스로 부담하는 비용의 수준을 명확히 인지한 후에, 자유롭게 그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전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하지 않거나, 약정 체결을 거부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그 비용 부담에 동의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는 곧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거나,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한 범위를 벗어나 그 이상으로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행사의 비용을 부담시

키는 것은 그 자체로 개정 가맹사업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0년 9월부터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등 가맹사업법 관련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가맹종합지원센터 대표번호(1855-1490, 내선 1번)로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카카오톡 채널 ID: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으로 연락하면 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로부터 1:1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관 홈페이지(www.kofair.or.kr)를 통해 온라인 상담예약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위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는 바이다.



**채경묵** 現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 CP가맹정보팀장



Best Natural Food Starts Here

# JADAM CHICKEN

“트렌드 앞선 행보에  
소비자가 반응!  
백년기업 꿈꾸다”

자담치킨  
나명석 회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2011년 새로운 열풍을 일으킨 브랜드가 등장했다. 주인공은 자담치킨이다.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과감한 방식을 도입하면서 웰빙 트렌드를 불러 일으켰다. 웰빙과 품격, 식품 안전성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자담치킨. 처음부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선의 재료를 사용해 치킨을 만든게 성공 전략이다. 백년기업을 꿈꾸는 자담치킨의 나명석 회장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됐다.

INTERVIEW | 이진창 발행인 WRITE | 이호 국장

**주**식회사 웰빙푸드가 운영하는 치킨 브랜드 자담치킨의 본격 태동은 2011년이다. 국민 야식으로 인정받을 만큼 한국인에게 친숙하고 인기 있는 치킨을 좀 더 품격있고 건강하게 소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끝에 탄생했다. 그 바탕에는 맛, 품질, 품격을 모두 갖춘 치킨을 선보인다면 소비자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리라는 신념이 있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유해식품 이슈 때문에 식품의 건강성과 안전성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소비 트렌드 역시 자담치킨의 탄생을 이끈 배경이다. 자담치킨은 10여 년이 지난 현재 많은 고객의 사랑을 받으며 가맹점 700개를 훌쩍 넘긴 중견 프랜차이즈로 굳게 자리잡았다.

## 동물복지 육계, 첫 걸음을 가다

자담치킨은 초기에는 무항생제 육계를 사용했다. 그러다 2017년부터는 정부가 정한 까다로운 규정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는 동물복지 원료육을 주요 메뉴의 재료로 사용해오고 있다. 동물복지는 비록 사람의 먹이가 되기 위해 사육되는 동물일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건강하고 편안하며 고유한 습성을 최대한 보장해주자는 인도적인 견지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육계의 경우 무려 100가지 이상의 규정을 준수하는 사육장과 도계장만이 동물복지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편안하게 잘 자란 원료육은 품질도 뛰어나게 마련입니다. 동물복지 원료육은 자담치킨에 담긴 웰빙 프리미엄







사람중심기업가정신대상수상(왼쪽)



자담치킨매장내부\_파주LCD점

컨셉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자담치킨의 브랜드 정신을 상징하는 핵심입니다. 동물복지 육계를 이용한 치킨은 자담치킨이 최초이며 여전히 유일합니다.”

그 밖에도 특허를 받은 숙성 기술을 사용해 수제 피클 형식으로 제조하는 치킨무,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알려진 20여 가지 이상의 견과류와 곡물을 함유한 파우더, 미세플라스틱 등 오염물질이 거의 없어 무공해 프리미엄 소금으로 불리는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사용한 염지 등 한 마리의 치킨을 조리하는 데 필요한 많은 재료를 건강에 이로운 것들로 구성하는 혁명적 시도를 과감하게 시작했다. 우수한 재료를 사용할 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원가 압박은 규모의 경제와 경영합리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한 것도 자담치킨의 성공 전략이다.

### 신메뉴·주방로봇, 트렌드를 앞서다

자담치킨은 이같은 차별화 전략을 통해 경험해본 소비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성장에 힘을 받았다. 브랜드 론칭 이래, 가맹점 수 기준으로 연평균 60% 가까운 고속 성장을 지속해 온 비결이다. 특히 최근 2~3년 동안 시장 트렌드를 파악해 야심차게 내놓은 신메뉴가 연속적으로 성공하고 효과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1년 넘게 하루 한개 꼴의 가맹점을 오픈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자담치킨은 최근 트렌드를 주도하는데 선도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신메뉴 개발이다. 다양한 혁신적인 신메뉴 개발을 통해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히며 더 나아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한국 치킨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아울러 매장 주방에 로봇을 도입하는 시스템도 진행중이다. 가맹점주의 노동을 덜고 인력난에 대처하며 자담치킨의 우수한 품질을 더욱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생각에서다.



“웰빙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고객에게 품질 좋고 맛이 뛰어난 치킨으로 인식되면서 고객의 인생 치킨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객들의 소신있는 소비, 즉 미닝아웃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담치킨에 대한 고객의 사랑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상생은 소통에서…존중의 미덕

나명석 회장은 자담치킨이 특별한 만큼 자담치킨을 선택해 창업한 가맹점주도 남다르다고 생각한다. 본사의 경영 방침과 제품 컨셉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이 어느 브랜드보다 높다는게 이유다. 이에 따라 본사도 가맹점을 단순한 가맹사업자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공영하는 사업 파트너로 보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점주들의 경조사나 생일을 챙기는 것에서부터 본사 직원들이 수시로 가맹점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브랜드 운영에 반영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식구로서 존중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신메뉴 출시 전에도 반드시 가맹점주에게 제품을 미리 보여주고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있다. 실제로 오랜 기간의 개발을 통해 완성되고 출시를 앞둔 신메뉴가 점주들의 의견에 따라 출시 보류된 경우도 있다.

“본사와 가맹점의 상생은 소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담치킨은 본사에서 가맹점으로 공문이 가장 많이 전달되는 브랜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달이 아니라, 이에 대한 가맹점의 피드백도 역으로 전달되고, 본사는 그런 의견을 경청하고 경영에 반영합니다” 자담치킨은 700여개의 가맹점이 생기고 운영되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로부터 시정조치나 지도, 징계 등을 받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모두 가맹점과 긴밀히 소통하고, 아프고 가려운 곳은 본사가 먼저 긁어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전문지 발행에 브랜드 경험까지…흐름을 읽다

나명석 회장은 현재 자담치킨 브랜드 하나에 전념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오래전부터 프랜차이즈와의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 전문지인 월



동물복지 후라이드

간 ‘창업&프랜차이즈’를 창간하고 발행인으로서 길도 걸었다. 수많은 프랜차이즈의 역사를 알고, 흥망성쇠도 눈여겨 봤다. 아울러 그 역시 몇 가지 프랜차이즈를 직접 운영한 경험도 있다.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의 사업이며, 그 시스템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은 본사, 가맹점, 협력업체가 얼마나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와 협력을 만들어주는 것은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노력, 그리고 영업의 성과를 세 축이 공정하게 나누려는 자세입니다”

프랜차이즈에서 흔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관계에만 주목하기 쉽다. 그런데 협력업체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협력업체는 본사와 가맹점에 좋은 원료를 제공하는 핵심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협력업체가 본사를 신뢰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제품을 공급해 줄 때에만 제품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고객이 브랜드가 표방하는 가치를 피부로 인식하고 충성고객이 될 수 있다. 나 대표가 본사를 믿고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십개의 협력업체에 최선을 다해 돕는 이유다.

“자담치킨은 10년 남짓 되었지만, 앞으로 갈 길은 멍니다. 좋은 제품, 친근한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인정을 받고 탄탄하게 성장하는 ‘백년 기업’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도하며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자담치킨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KFN



# “선한 영향력에 성장을 더한 든든한 동반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울경지회장  
(불막열삼 대표)  
오몽석

연간 매출 118조원, 종사자 144만여명, 브랜드 수 11,213개. 2022년 기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규모이다. 이처럼 성장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올바른 방향성을 잡기 위해 설립된 단체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다. 산하 6개 지회와 미국 LA 해외지회를 두고 있으며, 이 중 부산·울산·경남지회 제 5대 회장으로 선출된 오몽석 불막열삼 대표((주)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의 힘찬 포부를 들었다. INTERVIEW | 이진창 발행인 WRITE | 이호 국장

**부** 산·울산·경남지회(이하 부울경지회)는 130여개의 회원을 두고 있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제일 큰 지회이다. ‘지역사회발전, 지역인재육성, 지역소상공인 성장’ 3가지 핵심 과제(발전, 육성, 성장)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의 발전을 위한 정기회의와 지역사회 봉사 등 지역행사를 꾸준히 개최 중이다. 두 번째는 부산시와 함께 체계적인 교육으로 프랜차이즈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세 번째는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해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브랜드 홍보 및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오몽석 회장은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프랜차이즈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의식을 견고히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소외계층 봉사활동, 대학과 산학협력, 지역 인재 육성 등도 이에 대한 일환”이라고 전했다.

## 발전·육성·성장, 큰 걸음

부울경지회가 매달 실시하는 정기회의도 상호간의 발전을

위한 힘이다. 정보전달과 협력업체와의 정보교환은 친목도 모뿐만 아니라 성장의 밑바탕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소통과 공감의 장 확대를 위한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소외계층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봉사활동도 빼놓을 수 없는 사업 중 하나로 손꼽고 있다.

부울경지회가 몇 년 전부터 공들이는 사업 중 하나는 지역 인재 육성이다. “지방에서 사업을 전개하는데 가장 큰 고충 중 하나는 프랜차이즈 관련 인재를 구하기 힘들다는 거죠. 대학에서도 관련 전공자를 찾아보기 드물어요.”

이를 위해 부울경지회에서는 대학과 산학협력 또는 교류를 통해 초청강의, 창업강좌,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일자리 창출 보고인 '부산 프랜차이즈 사관학교'를 연 2회 개설, 운영중이다. 이는 지역발전 인재와 창업을 꿈꾸거나 성장을 실현하고 싶은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초석이 되고 있다.

매년 벡스코에서 '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도 주최, 주관하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창업지원 기회 확대와 프랜차이즈 소상공 지역단위 활성화를 위해서이다. “올해부터는 경남·울산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저변 확대에도 집중하려고 해요. 각각의 지역에서도 젊은 인재들이 터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돼요.”

#### 경쟁력 메뉴에 출점 전략을 더하다

오몽석 회장이 이끄는 브랜드는 불막열삼이다. 특별한 소스 비법을 바탕으로 막창과 삼겹살을 메인 메뉴로 내세우고 있다. 2013년 직영 1호점(부산 화명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30여개 매장과 일본(동경 신주쿠), 베트남(호치민 푸미흥) 해외사업도 진출해 있다. 가맹본부는 (주)꿈을실현하는사람들이다. 2009년 명우유통을 시작으로 2011년 명우식품, 2013년 지금의 가맹본부를 설립, 올해 14년차 부산에 본사를 둔 기업이다.

불막열삼이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경쟁력 있는 메뉴 선정에 있다. “불막열삼 브랜드를 만들 때 막창삼겹이라는 아이템과 함께 2가지 전략에 중점을 뒀어요. 첫 번째는 출점전략, 두 번째는 독보적 경쟁력 갖춘 음식이죠.” 생막창, 불막창, 삼겹살 등의 메뉴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친숙한 음식이다. 해외 현지 소비자들에게는 독특한 음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더하여 언제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장사는 돈을 벌려고 하는 이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투자대

비 수익, 투자금 회수 등을 고려해 동네상권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게 됐죠. 여기에 B급(골목) 상권으로 출점전략을 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장사’의 꿈을 실현하자. 이런 마음으로 론칭했어요”

이렇게 해서 탄생한 불막열삼은 단단한 향토 브랜드라는 평을 받고 있다. 오몽석 회장은 여기에 지난해부터 아몽즈커피 브랜드를 론칭해 부산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개설 진행과 함께 전국적인 확대도 전개하고 있다.

#### 선한 영향력, 프랜차이즈의 힘

오몽석 회장은 프랜차이즈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믿고 있다. 바로 프랜차이즈 장점에 대한 자신감이다. “정말 많은 장점이 있어요.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죠. 가장 큰 장점은 창업의 안정성이예요. 코로나19 당시 가맹점들이 속수무책으로 폐업위기에 놓일 때, 정말 많은 본사들이 ‘착한 프랜차이즈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지원하고 나섰어요. 함께 위기를 버텨낼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고용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1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경제활동 인구 중 4.5%인 120만여명이 프랜차이즈 종사자였지만, 22년 기준 144만여명(전년 대비 24만명)으로 증가했다. 또 작은 점포가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제도적 시스템을 갖춘 것도 프랜차이즈의 장점이 다. 보통 성장사다리라고 하는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

요한 요소이다. 경영 노하우와 아이디어만 있으면 본사를 세워 체계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

해외진출을 통한 국가경제 기여도 프랜차이즈 장점으로 빼놓을 수 없다. 세계적인 한류열풍의 중심에는 K-pop과 K-food가 있고, 각국의 K-food 열풍을 주도하는 것이 K-프랜차이즈다. 지식기반 사업모델이기 때문에 해외진출이 쉽고, 한국의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면서 외화획득과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조건

프랜차이즈 사업에 도전하는 이들은 여전히 많다. 오몽석 회장은 이들에게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추 것을 조언한다. “내가 하고 싶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아이템, 시스템, 노하우가 필요해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 안되죠” 이를 위해 성실한 실천을 강조한다. 그래야 기회가 온다는 믿음이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준말이죠. 위험 속에는 반드시 기회는 있어요. 오늘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는 실천이야말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지혜이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힘이에요”

자신의 브랜드를 단단히 하면서 세계로 나아가는데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는 오몽석 회장, 그가 이끄는 부울경지회가 지역사회와 자영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생활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KFN**





## ● 교촌치킨 아동건강 지원사업...치킨 간식·지원금 5000만원 등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제2회 아동건강 지원사업'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을 위한 치킨 간식 지원에 나섰다. 교촌은 2월 22일 강원도 원주시 원주 아동센터에서 지원금 전달식을 마련하고 한국아동복지협회에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제2회 아동건강 지원사업'은 '아이들의 식(食)과 심(心)을 건강하게 채운다'라는 슬로건 아래,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에게 건강한 외식 기회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활기찬 새 학기를 응원하기 위해 평소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국



의 많은 아동들이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Brand Highlight

## ● 굽네 '시카고 피자' 시리즈 3년간 600만판 팔려

지앤푸드가 운영하는 오븐요리 프랜차이즈 굽네의 '시카고 피자' 시리즈가 3년간 누적 판매량이 600만판을 넘어섰다. 굽네 시카고 피자 시리즈는 ▲시카고 ▲바비큐 시카고 ▲리코타&브리 시카고 총 3종이다. 그중 시카고 피자는 굽네 피자 카테고리 중 주문 건수 1위였다.

정태웅 지앤푸드 대표는 "굽네만의 오븐 노하우와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를 적용한 시카고 피자 시리즈에 대한 소비자의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유익미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앞으로 치킨, 피자, 디저트 등 오븐으로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메뉴를 지속 개발하며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Brand Highlight

## ● 피자플렉스 피자스웨그로 브랜드명 변경

소자본창업 피자브랜드인 '피자플렉스'가 3월부터 상호를 '피자스웨그'로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한다. 아울러 피자스웨그 관계자는 고객 구매 패턴과 입맛,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차별화된 프랜차이즈 사업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피자스웨그는 자가제빵 수제 생도우로 남다른 식감을 자랑하며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 2022년 대한민국 고객감동지수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김인환 루멘그룹 대표이사는 "브랜드 상호 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번 상호(브랜드명) 변경을 계기로 피자업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거듭날 계획이다"고 말했다.



## ● 채선당 '2023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샤브샤브전문점 부문 수상

샤브샤브 대표 브랜드이자 야채가 신선한 집이라는 콘셉트의 채선당이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소비자포럼이 공동 주관한 '2023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샤브샤브전문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2월 17일 오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소비자가 직접 뽑는 '2023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시상식'은 2023년을 이끌어갈, 기대되는 브랜드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브랜드 어워드다.



Brand Highlight

## ● 땅스부대찌개 대학 MT 지원 이벤트

부대찌개 포장·배달 테이크아웃 전문점 땅스부대찌개가 3월 대학 MT 시즌을 맞아 먹거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벤트 내용은 대학 MT 일정에 맞춰 땅스부대찌개나 땅스떡볶이를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국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졸업생 제외)이다.

땅스부대찌개 관계자는 "수령 후 MT에서 맛있게 먹는 브이로그, 후기 이미지 또는 동영상 SNS에 업로드하면 모든 참여방법이 완료된다"라며 "봄을 맞아 우애와 친목을 다지는 젊음의 공간에서 땅스부대찌개와 떡볶이로 맛과 추억을 함께 만들기 바라는 의미에서 이벤트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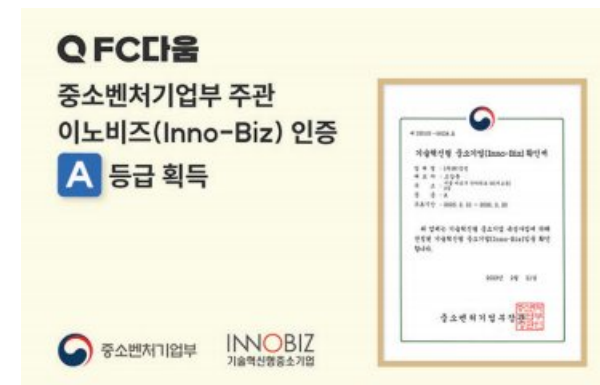


Brand Highlight

## ● FC다움 '외식인' 이노비즈 인증 'A등급' 획득

가맹관리 솔루션 앱 'FC다움'을 운영중인 (주)외식인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이노비즈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인증, A등급을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노비즈(Inno-Biz)는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혁신시스템과 기술보증기금이 실사 평가해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잠재력을 인정받은 기업에게 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다.

(주)외식인의 가맹관리 솔루션 앱 'FC다움'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핵심적인 가맹점 품질(QSC) 점검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가맹점 계약관리, 가맹점 커뮤니케이션, 가맹점 요청사항 관리, 전자계약 기능 등을 담고 있다.





# 위생관리가 매출로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

## 케이엠에스컨설팅

WRITE | 김은영 기자

식중독, 이물혼입 등 잇을만 하면 나오는게 위생 이슈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문제들이 고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2017년 5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 3개 등급을 지정해 공개, 홍보하는 제도이다. 제도가 시행된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인식의 저변이 선진국 만큼 확대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 식품 위생컨설팅 전문기업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배달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음식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불안은 더 커졌다. 이는 위생등급제가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소구점이 되는 현상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최초 골목상권 음식점 사장님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 케이엠에스컨설팅의 전신인 ‘한국위생등급지원센터’이다. 한국위생등급지원센터는 초기 골목상권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감사 및 위생등급제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를 제외하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하다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소/중규모 프랜차이즈 브랜드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게 됐다. 동시에 제공 서비스 영역도 넓어졌다.

기존의 위생교육, 위생감사 뿐 아니라 QSC, 위생매뉴얼 개발, 운영매뉴얼 제작, 미스터리쇼퍼 등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접목했다. 이와 동시에 2021년 ‘케이엠에스컨설팅’으로 상호변경 및 법인 전환했다.

순살만공격, 땅땅치킨, 피자이탈리, 콤포치떡 등 라이징 브랜드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케이엠에스컨설팅은 최근 더본코리아와 QSC 점검대행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요기요 위상(위생+상생)캠페인 컨설팅 진



행업체 지정, 스마트월드 위생등급제컨설팅 수행업체 지정도 됐다.

케이엠에스컨설팅 구교민 대표는 “서비스의 기본은 현장과 사람 중심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에 대처하기 위한 솔루션은 사람의 몫이다. 단순히 현장을 파악하고, 지적해 보고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들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간다는 생각으로 같이 고생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서비스의 이상이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전문컨설턴트들은 대부분 외식업에서 1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갖추고 있어 신뢰성과 전문성은 물론 공감과 이해를 통해 인증까지, 커다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영**



# 쿠우쿠우, 봄 신메뉴 ‘피어나는봄’ 출시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가 ‘피어나는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봄 신메뉴를 출시한다고 전했다.

신메뉴는 △시트러스 샐러드 △봄동 아귀 지리탕 △냉이 봉골레 파스타 △그린 케이크 △돌나물 꼬막 비빔밥으로 봄철 입맛을 돋우는 메뉴이다.

이번 메뉴는 봄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점이 특징이며 ‘시트러스 샐러드’는 귤, 자몽, 금귤 등 상큼한 시트러스 과일류가 주재료인 샐러드로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봄동 아귀 지리탕’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아귀살과 각종 채소를 넣어 시원하고 담백한 맛을 내며, ‘냉이 봉골레’는 바지락 육수에 향긋한 냉이를 더해 감칠맛을 살렸다.

‘그린 케이크’는 녹차라떼가루와 피스타치오로 풀밭을 표현하고 초코꽃을 올려 꽃밭을 표현했다. 이와 함께 선보이는 ‘돌나물 꼬막 비빔밥’은 제철 식재료인 돌나물과 꼬막을 활용한 메뉴다. 쿠우쿠우는 봄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출시하여 고객들의 다양한 입맛과 취향을 반영하고자 했으며 봄 신메뉴는 3월 15일 수요일부터 매장 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WRITE | 정혜연 기자

# 쿠우쿠우, 창립기념일 맞아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 후원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는 22일 창립 12주년을 맞아 월드비전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활동은 성남시 결식아동을 위한 도시락 재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쿠우쿠우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하여 후원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쿠우쿠우 관계자는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의미 있는 사회공헌 행사를 하게 되어 부듯하게 생각한다”며 “후원활동을 계기로 결식 아동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기대한다”고 말했다.

쿠우쿠우는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결식 아동 및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동행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쿠우쿠우는 창립 후 12년간 매년 신메뉴 개발에 힘써왔으며 120여 가지 이상 다채로운 메뉴 구성 및 깔끔하고 쾌적한 매장 환경을 통해 프랜차이즈 프리미엄 뷔페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WRITE | 정혜연 기자





Korea Franchise Association Column ● 칼럼

# 한국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보완해야 할 약점

WRITE | 이경희

사업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단순한 것을 최고로 잘하는 것이다. 단순한 것은 관리요소가 적고 자원이 적게 든다. 쉬운 분야를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혁신적이고, 고도화시키고, 앞서 나가면 경영 효율성이 높다. 반면 복잡한 것은 웬만큼 노력해도 잘하기가 쉽지 않다. 관리요소가 많아 그만큼 많은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도입 초기만 해도 프랜차이즈 운영 방식은 매우 복잡하게 여겨졌다. 해외 유명 브랜드를 들여온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내 가맹본부들은 영세했기 때문에 복잡한 시스템을 대중 대중 운영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도 부족했고 인재를 찾기도 어려웠다.

단순한 것을 최고로 잘해야 성공하는데 복잡한 시스템을

대중 운영했으니 실패는 불을 보듯 뻔했다. 그것은 80, 90년대 가맹본부와 가맹점 폐업률이 높았던 중요한 요인이었다.

## ◆프랜차이즈 시스템, 상향 평준화 시대

하지만 산업규모가 커지면서 가맹본부의 운영 시스템은 나날이 발전했다. 복잡하게만 보이던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지금은 단순하게 여겨질만큼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전문 인재들도 늘어났다. 덕분에 지금은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상향 평준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고도화가 필요한 분야가 남아 있다. 브랜드 매니지먼트력, 변화관리 역량, 관계 역량, 교육시스템, 기업가정신 등이다.

## ◆프라이빗 브랜드에 밀리다

브랜드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고 인지도를 높이는 마케팅 역량은 높아졌다. 하지만 프라이빗 브랜드를 흉내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뛰어난 개인사업자가 만든 브랜드가 골목상권을 주도하고 있다.

## ◆거래 관계 넘어서려면

관계역량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금은 브랜드 파워를 넘어서 브랜드 애착이 필요한 시대다. 거래 관계를 넘어서 브랜드와 이해 관계자가 공감하며 결속감을 형성해야 한다. 발끈해서 계약만 강조하거나 집을 먹고 가맹점에 밀리는 것은 둘 다 해결책이 아니다. 두 사례 모두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 ◆브랜드 애착 형성 순서

가맹점 사업자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상호 윈윈을 위해 앞으로 할 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운명공동체라는 결속감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자 손익만 따지는 태도가 누그러졌다. ESG경영도 좋은 실천 방안 중 하나이다.

브랜드 애착이 필요한 이해당사자의 순서는 첫째 가맹본부 직원, 둘째 가맹점 사업자, 셋째 가맹본사 협력업체, 넷째 최종 소비자, 다섯째 가맹본부가 속해있는 사회 커뮤니티 순이다.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최종 소비자가 네 번째 순서인 이유는 앞에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잘해야만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 브랜드 이상향은?

브랜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브랜드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 브랜드 이상향을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각 이해당사자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정하고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돋워야 한다.

## ◆교육시스템과 기업가 정신 육성도 과제

교육시스템과 기업가 정신도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약점이다. 가맹본부 CEO들이나 가맹점 조직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많아졌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시행하는 교육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도입 초기만 해도 프랜차이즈 운영 방식은 매우 복잡하게 여겨졌다. 해외 유명 브랜드를 들여온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내 가맹본부들은 영세했기 때문에 복잡한 시스템을 대중 대중 운영했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도 부족했고 인재를 찾기도 어려웠다.”

지속적인 교육 시스템이 약하고, 가맹점 오픈 전 교육에 치우쳐 있다. 역량 강화 교육보다는 기능 훈련 교육이 대부분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 그 중 가장 간과하는 정의 중에 하나는 ‘프랜차이즈는 기업가를 육성하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기업가정신은 교육을 통해 키울 수 있다. **KFA**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  
부자비즈 의장  
창업·마케팅 분야 저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FCEO 주임 교수

## 저서

CEO의 탄생  
이경희 소장의 2020창업트렌드  
내사업을 한다는 것

## 강의

세종대 MBA, 동국대 MBA,  
경희사이버대학 호텔외식MBA,  
한국방송통신대학 프라임스쿨,  
세종사이버대학 프랜차이즈 전략,  
신사업개발, 상권입지론, 외식산업론,  
기업가정신 등





Korea Franchise Association

Column

● 칼럼

# 프랜차이즈 기업의 위기탈출과 새로운 도약의 길

WRITE | 장재남

2023년이 시작되었지만 한국 경제는 여전히 암울하기만 하다. 되돌아보면 많은 경제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은 거의 매년 한국 경제를 위기라고 전망하고 예측했다. 이젠 ‘경제위기’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다. 하지만 지난 1년은 특히 프랜차이즈 기업과 가맹점 사업자들에게는 매우 힘든 시간이었다.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의 피해가 가시기도 전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부작용이 한국 경제에 위기경보를 울리고 있다. 정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규제완화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복합적인 위기로소들 앞에 고스란히 직면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여파는 내수 중심의 가맹점 사업자의 경영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비관은 결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 특히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위기에 강한 모습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국가별 경제공황에서도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 프랜차이즈 산업이며, 위기마다 창의적 사업모델 개발이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기업 또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킨 것도 프랜차이즈 산업이다.

다만 지금 모두가 직면한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영전략의 수립과 가맹점 사업자까지 포함한 구성원들의 창의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12월에 중소기업 4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경영실태 및 2023년 경영계획’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61%가 ‘원가절감 및 긴축’을 올해의 핵심 경영전략으로 꼽았다. 뒤를 이어 34.9%가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 31.5%가 ‘신규 판로 확대’, 29.3%는 ‘신규사업 추진 등 사업다각화’를 각각 꼽았다. ‘연구개발(R&D), 설비 등 투자확대’(11.7%), ‘인력 구조조정’(11.7%), ‘우수인재 확보’(8.0%) 등이 뒤를 이었다.

프랜차이즈 기업 또한 예외는 아니다. 국내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수익구조는 취약한데 고비용 구조의 사업을 하고 있다. 물론 내외적인 환경 변화, 경쟁심화 등으로 인하여 가맹본부의 기능과 역할이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조직이 커지고 인

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의 매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싼 광고와 홍보와 프로모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만큼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기본 개념에 기반하여 조직을 구축하고 사업구조를 개선한다면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먼저 인적 중심의 사업을 시스템 기반의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기반의 사업구조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통일성과 일관성 유지와 편리성과 용이성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인건비를 크게 줄이는 대신에 생산성은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차별성 기반의 품질 기준을 갖춘 필수품목을 확대하고, 가맹점 매출 기반의 로열티 중심의 수익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와 가맹점의 매출증대를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와 판촉비용은 공동분담을 통해 비용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 또한 가맹점의 매출증대를 위한 노력을 통해 가맹점의 경영성과를 높임으로서 가맹본부의 매출증대와 가맹점 모집의 성과로 이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가맹점 중심의 판매채널은 직영점과의 혼용체제로 전환해야 하고, 기존의 유통채널과의 콜라보를 통해 판매채널 확대와 사업다각화를 꾀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내부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신규브랜드 런칭보다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경험과 사업적 인프라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단순한 기업의 매출증대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전파와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맹본부의 경쟁력이 곧 가맹점의 경쟁력이고, 가맹점의 성장이 곧 가맹본부의 성장이라는 사실을 경영 전략의 기본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KFA**



장재남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원장

CFE, 경영학박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위원





Korea Franchise Association

Column

● 칼럼

## 이사회 결의와 연대보증 행위

WRITE | 안철현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려면 그 사업을 담기 위한 그릇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으로는 개인사업체를 통해 운영할 수도 있고, 주식회사라는 법인 형태를 통해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중 주식회사라는 형태의 그릇을 만들 때 투자를 받아서 만들거나 여러 명과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내에 이사들의 협의체인 이사회라는 의사결정기구를 두게 마련이다.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뭐 대충 이 정도는 다 알리라 믿는다. 회사에서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 기관이다.

이런 이사회는 첫째 주주총회의 소집, 대표이사의 선임과

공동대표의 결정 등 상법이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나 상법 또는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도 상법 또는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따로 규정한 것이 아니면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전부 이사회의 권한사항이다. 둘째 대표이사의 선임뿐만 아니라 '해임권'을 가지는 등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도 가진다.



그런데 주식회사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법리 때문에 법원에서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송과 종종 마주치게 된다. 만약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업무집행을 한 경우에 그 업무집행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타인과의 매매 등 대외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무효가 되는지는 거래의 안전과 관련하여 똑같이 보아야 하는지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오래 전부터 결의를 위반하거나 하자 있는 결의에 따른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에 관해 대표이사의 선임 등 대내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은 무효로 보고, 타인과의 매매 등 대외적인 것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악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효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한 번 보자. 주식회사 로투스의 대표이사 안모씨는 회사의 정관상 필요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10월 7일 주식회사 원더박스가 K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에 대해 주식회사 로투스가 연대보증 하였다. 주식회사 원더박스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K은행은 법원에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로투스에 대해 보증채무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재판에서 주식회사 로투스는 연대보증 당시 주식회사 로투스의 정관상 필요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K은행도 이사회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안모씨가 한 주식회사 로투스의 연대보증행위는 주식회사 로투스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에서 지적하였으므로 주식회사 로투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독자들도 짐작하리라 믿는다. 법원에서는 주식회사 로투스의 대표이사인 안모씨가 2022년 10월 7일 주식회사 원더박스가 K은행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에 관해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안모씨가 주식회사 로투스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할 당시 주식회사 로투스의 정관상 필요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K은행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안모씨의 위 연대보증행위는 주식회사 로투스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연대보증 당시 주식회사 로투스의 이사회결의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당시 K은행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 판례에서는 오래 전부터 결의를 위반하거나 하자 있는 결의에 따른 대표이사의 행위의 효력에 관해 대표이사의 선임 등 대내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은 무효로 보고, 타인과의 매매 등 대외적인 것은 거래안전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악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효로 보고 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연대보증을 한 회사에서 사전에 이사회결의가 있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거나 설령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한 회사에서 은행의 악의나 무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 실컷 연대보증 해주고 이사회결의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너스레를 떨어봐야 별 볼일 없다고 하겠다. **KFN**



안철현

법무법인 로투스 대표변호사

2016년 - 송파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2016년 - 강남구청 인사위원회 위원

현/법률소비자연맹 집행위원

현/(주)소리바다 감사

현/경희대총동문회 감사

현/사단법인 민주정치아카데미 상임이사

T : 02-3478-6011 /

E : bebopmonk@hanmail.net





# 개정 세법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구조 절세 전략

WRITE | 최인용

2023년의 개정세법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업구조와 관련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이 이뤄졌다. 다음의 개정세법 사례별로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법인세의 세율 인하

법인세 세율이 인하됐다. 과세표준의 구간별로 1%씩 인하되었으며 이익이 커질수록 세율의 인하 폭이 커지게 됐다. 세율의 인하는 2023년부터 적용되며 법인세 부담의 경감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법인세율이 인하됐다. 매출액이 큰 회사는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세금을 줄일 수도 있다.

| 과세표준        | 개정전 (~2022) | 개정 후(2023~) |
|-------------|-------------|-------------|
| 2억원 이하      | 10%         | 9%          |
| 2억~200억     | 20%         | 19%         |
| 200억~3,000억 | 22%         | 21%         |
| 3,000억원 초과  | 25%         | 24%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2024년 3월 법인세신고시 적용하는 세율입니다.



**개정이유**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 국내 자회사의 배당금 익금 불산입 확대

프랜차이즈 본사의 기업구조는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까. 프랜차이즈 본사와 물류 및 제조 지원회사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의 형태로 하는 것이 좋을까. 또한 직영점 관리회사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고민을 한다.

2023년 세제 개편내용 중에는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활용해 자회사 형태로 회사를 관리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 물류 및 직영점의 30%(50%) 지분투자로 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을 확대
- 사내 벤처기업 사업부를 이용한 신규브랜드의 자회사 구조 가능
- 상속을 위한 설계를 위한 가족 지분의 일부 참여 가능

## 3. 기업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확대

프랜차이즈 본사의 기업 상속이 원활하게 되도록 세금 개편이 이뤄졌다. 해당 내용은 분량이 많으므로 별도로 소개하기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매출액 4천억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기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 기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중전100억) 한도로 특례 증여세 공제 확대
- 사후관리 최대 5년(중전 7년)으로 사후관리기간 완화

등 기업 승계로 인한 주요한 내용이 개정 및 신설되었다. **KFA**

## 현 행

###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기업형태(자주/일반회사, 상장/비상장법인) 및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 차등 적용

#### < 일반법인 >

##### 상장법인

| 지분율          | 익금불산입률 |
|--------------|--------|
| 100%         | 100%   |
| 30%이상 100%미만 | 50%    |
| 30%미만        | 30%    |

##### 비상장법인

| 지분율          | 익금불산입률 |
|--------------|--------|
| 100%         | 100%   |
| 30%이상 100%미만 | 50%    |
| 30%미만        | 30%    |

#### < 지주회사 >

##### 상장법인

| 지분율          | 익금불산입률 |
|--------------|--------|
| 40%이상 100%미만 | 100%   |
| 30%이상 40%미만  | 90%    |
| 30%미만        | 80%    |

##### 비상장법인

| 지분율          | 익금불산입률 |
|--------------|--------|
| 80%이상 100%미만 | 100%   |
| 50%이상 80%미만  | 90%    |
| 50%미만        | 80%    |

## 개 정

### ■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 상장 및 비상장 지주회사 불문

| 지분율         | 익금불산입률 |
|-------------|--------|
| 50%         | 100%   |
| 30%이상 50%미만 | 80%    |
| 30%미만       | 30%    |



**개정이유** 국제 기준에 맞추어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년 및 '24년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전)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강남지사 대표세무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국세청 조사요원 강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세무사

마곡지주협의회, 하남미사지구지주

협의회 자문세무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력위원장

T : 02-555-5025

E : ciy0130@daum.net





Korea Franchise Association

Column

● 칼럼

# 프랜차이즈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WRITE | 이금구

2023년 고용노동부 정책 중 사업주가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지원제도 중에서 프랜차이즈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알아보기로 한다.

**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신규 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 일시지급(최대 1200만원)하며,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

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된다.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①정년을 1년 이상(정년연장) ②정년을 폐지 ③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 최대 2년간 피보험자의 30%한도까지 지원된다.

**4. 장애인 고용장려금 및 신규고용지원** : 장애인의 무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초과 장애인 1인당 월 35~90만원을 지급하고, 2022.1.1 이후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35만원~90만원 지원된다.



**5.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 교대제 도입 확대, 실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으로 월 평균 근로자수 도입 직전 3개월 월 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근로자수 1인당 월 40~80만원을 지원하고, 임금감소액을 보전하는 경우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1인당 월 10~40만원 지원된다.

**6.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신중년 고용이 증가한 경우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연 960만원, 중견기업은 연 480만원 지원된다.

**7.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연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 지원. 단, 보수가 110만원 미만이거나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제외된다.

**8. 월라벨 일자리 장려금**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

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①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 근로자 신청으로 주15시간~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③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④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를 제한한 경우 간접노무비 월 30만원과 임금감소액 보전금으로 월 20만원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까지 지원된다.

**9.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 근로자의 유연근무제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우 간접노무비로 월 30만원, 시스템 구축비로 최대 2000만원 지원된다.

**10. 정규직 전환 지원**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4대 보험가입,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간접 노무비로 월 30만원, 임금증가 보전금으로 월 20만원 지원된다.

**11.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을 지원. 단,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은 월 200만원 지원된다.

**12. 고용유지지원금** :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거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을 지원, 무급휴업 및 휴직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된다. **KTET**



이금구

노무법인 C&amp;B 대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위원1991년\_제3회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2012년\_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고문2015년\_(사)한국소상공인단체  
연합회 고문2016년\_GS25, 프랜차이즈  
노무관리 시스템 도입

T : 1544-8323 /

E : www.franhr.com



# ‘백종원 매직’에 되살아난 예산시장 가보니 “30年來 최대 인파”...‘먹거리만 북적’ 우려도

WRITE | 노승욱 매경이코노미 기자



예산시장 먹거리 장옥. 평일 오후에도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만큼 인파로 붐빈다.

“내가 여기서 50년 장사했어. 1990년대까지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지. 대형마트 생기고 침체되고 인구도 계속 줄었어. 이렇게 사람 많이 오는 건 20~30년 만에 처음이야.” (건어물 가게 사장)

“전에는 장날에나 사람 구경했지. 요즘은 매일 북적북적해.” (잔치국수집 사장)

“지금 주문해도 한 시간 뒤에 와야 돼. 주말에는 (손으로 멀리 가리키며) 저~기까지 줄을 서.” (치킨집 사장)

지난 2월 1일 서울 영등포역에서 새마을호를 타고 1시간 30분 달려 도착한 예산역. 평일 오후임에도 긴 셀카봉을 들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속속 눈에 띈다. 역전 앞에서 ‘인증샷’을 찍는 모습에서 ‘핫플레이스’에 진입했음을 실감케 한다. 택시를 타고 7분여를 가니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를 진행하는 예산상설시장이 나온다. 방사형으로 넓게 퍼진 허름한 2층 건물 앞에 호떡, 과일, 채소를 파는 노점상이 늘어선 시골 장터와 같은 모양새다.

안으로 들어가니 판 세상이다. 입구에서 1970~1980년대 감성의 ‘버스 승강장 포토존’이 맞이한다. 어둑한 시장 속 백열등 핀 조명을 설치, 누가 찍어도 ‘사진발’ 잘 나오게 생겼다. 미로처럼 뾰족 골목길에는 인스타그램에서나 볼 법한 세련된 뉴트로 감성 가게들이 늘어섰다. 더본코리아 ‘새마을식당’과 비슷한 감성의 커피 전문점, 닭볶음집, 국수집에서 백종원 대표의 ‘손길’이 느껴진다. 골목길을 지나면 드디어 ‘먹거리 장옥(長屋·거리 양쪽에 줄지어 세운 상점)’이 펼쳐진다. 825㎡(약 250평)에 달하는 넓은 광장에는 푸드코트처럼 50여개 테이블이 포장도 안 된 땅바닥에 주욱 깔려 있다. 주위로 둘러선 정육점, 중국집, 건어물, 슈퍼, 칼

국수집 등에서 음식을 사와 시골 장터에 온 듯 가운데서 다 같이 나눠 먹는 구조다. 젊은 커플부터 유모차를 끌고 온 부부, 셀카봉을 들고 라이브 방송 중인 유튜버까지 전국에서 모인 관광객 수 백 명으로 북적인다.

먹거리를 파는 가게들은 문턱이 닳도록 붐빈다. 중국집, 칼국수집 등은 오후 2시인데도 벌써 “재료가 소진됐다”며 문을 닫았다. 치킨집은 월드컵 경기일도 아닌데 “한 시간 치 주문이 밀렸다”며 손사래를 칠 정도. 인파는 장옥을 넘어 시장 건너편까지 흘러든다. 예산시장 맞은편 한 잔치국수집 사장은 “여기서 9년 동안 장사했는데 이렇게 사람 많이 오는 건 처음이다. 장옥의 가게들이 손님을 다 못 받으니 우리 가게까지 와서 먹는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전통시장의 뉴트로 리뉴얼이란 점에서 예산시장은 일본 쇼와노마치와 닮아있다. 유튜브 ‘창업직설’에서 두 시장을 가보고 비교한 후기 영상을 볼 수 있다.

## ‘한국판 쇼와노마치’ 예산시장 뉴트로 시장 보러 주 1만명 ‘북적’

백종원 대표의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는 추억을 자극하는 ‘뉴트로’ 콘셉트로 승부했다는 점에서 2000년께 일본 오이타현 분고타카다시의 그것과 닮아 있다. 분고타카다시는 인근 철도역 상권이 쇠퇴해 지역 주민 발길이 뜸해지자 시장을 20세기 초중반 풍경으로 통째로 리모델링해 관광지 상권으로 재탄생시킨 프로젝트다. 시장 이름도 1926년부터 1989년까지 재위한 일왕의 이름을 따 ‘쇼와노마치(쇼와 시대의 거리)’로 짓고, 1950~1980년대에 쓰던 각종 생활용품과 빛 바랜 영화 포스터 등을 진열했다. 일본의 전성기이자 자신의 청춘 시절을 회상케 함으로써 전국에서 중장년 관광객을 불러 모았다. 2001년 2만5000명에 불과했던 관광객 수는 이듬해 8만명, 2003년에는 20만명으로 불과 2년 만에 8배 급증했다. 이후 영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며 젊은이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도 방문,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매년 30만~40만명이 찾는 명소가 됐다.



백종원 대표가 뉴트로 감성으로 리뉴얼한 닭볶음 가게 모습.

예산시장이 쇼와노마치와 다른 점이 있다. 사업의 핵심 주체가 지자체나 상인회가 아닌, 성공한 사업가인 백종원 대표라는 것. 백 대표는 지난해 공실로 방치됐던 상가를 더본코리아를 통해 직접 사들여 옛 모습의 식당으로 개조 중이다. 세금이 아닌, 민간의 유능한 사업가가 사비(私費)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속도가 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예산시장도 일주일 만에 방문객이 1만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 가도를 달리는 중이다. 단, 예산시장이 쇼와노마치와 다른 점이 있다. 사업의 핵심 주체가 지자체나 상인회가 아닌, 성공한 사업가인 백종원 대표라는 것. 백 대표는 지난해 공실로 방치됐던 상가를 더본코리아를 통해 직접 사들여 옛 모습의 식당으로 개조 중이다. 세금이 아닌, 민간의 유능한 사업가가 사비(私費)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속도가 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외식업에 특화된 백 대표의



예산시장 입구에 위치한 옛날통닭집. 인파가 몰리며 1시간 이상 대기줄이 늘어선 채 있다.





인파로 붐비는 먹거리 장육.

주특기로 인해 자칫 '너무 먹거리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인파로 북적이는 예산시장에서도 업종별 온도 차가 뚜렷했다. 먹거리가 아닌, 일반 상품을 파는 가게들은 '백종원 매직'이 다른 세상 얘기라는 반응이다. 생활 잡화를 파는 ○○상회 사장은 "사람 구경은 실컷 하지. 그런데 먹거리가 아니니 우리 가게는 오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 속옷 매장 사장은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활기가 도는 것은 반갑다. 그러나 가게 매출은 달라진 게 없다. 하루에 하나도 못 팔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예산시장에만 있는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먹거리 장육은 예산의 역사와 전통이 녹아 있다 기보다는, 1970~1980년대 감성을 재현한 '흔한 뉴트로'의 집합체에 가깝다. 거리 풍경만 옛날로 돌리지 않고, 상인도 그 시절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接客 서비스를 강화하려 했던 '쇼와 시대 상인 재생' 노력도 예산시장에서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 백종원 매직 지속 가능할까

#### "먹거리 외 볼·놀·즐길 거리 채워야"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는 아직도 갈 길이 먼 현재 진행형 사업이다. 더본코리아 측은 호텔 건립도 검토 중이다. 예산군도 지난 1월 말 "향후 1000만 관광 시대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담은 예산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

혔다. '백종원 시장'을 보러온 관광객들이 단순히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체류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예산시장 흥행이 지속되려면 백종원 대표 특유의 먹거리 외에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접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백종원 대표는 선진 때부터 예산에서 살아온 토박이로서 해당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스토리텔링에 사업가로서 백 대표의 역량과 열정이 더해져 초기 흥행에 성공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 단, 관광지로서 지속 성장하려면 교통 접근성, 주변 인프라, 볼거리, 즐길 거리, 놀 거리 등 문화 콘텐츠가 모두 어우러져야 한다. 예산시장이 지속적인 재방문을 이끌어내려면 이런 부분을 더 채울 필요가 있다." 이덕훈 한국전통시장학회(전 한남대 총장)의 조언이다.

미쓰하시 시게아키 전 일본 마치즈쿠리협회 이사장이 저서 '전통시장 이렇게 살린다'를 통해 분석한 쇼와노마치 성공 비결도 흥미할 만하다.

"상점가는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각 상점마다 번영 조건, 침체 요인, 활성화 방법이 모두 다르다. 쇼와노마치는 신설 테마파크가 아닌, 기존 상점이 거리에 쇼와 시대 마을의 분위기를 재현함으로써 지역 자원을 살려 관광 산업력을 만든 사례다." **KEN**

# 고품격 자영업자 편파방송 Youtube 창업직설

유튜브 채널 "창업직설"은 국내 최고의 자영업자 전문 미디어이자 기업가 정신과 기획에서 이야기를 발굴하는 영상 콘텐츠 채널입니다.

창업, 취업, 진로, 교육, 임팩트 투자, 스타트업, 기업가 정신 등의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영상제작과 스토리텔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창업직설





## 협회 분과위원회, 신년 모임 등 성공적인 2023년 활동 다짐

2023년을 맞아 새롭게 구성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8대 분과위원회들이 신년 모임을 잇따라 개최하고 올해 활발한 활동과 협회 회원 간의 단합을 다짐했다.

우정회(회장 김태환)는 2023년 3월 2일 첫 라운딩을 열고 심신을 단련하고 친목을 나누며 올해 재도약을 기약했다. 커뮤니케이션위원회(위원장 임영서)는 2월 17일 프레스센터 협회 기자간담회와 2월 22일 국회 정책토론회에 잇따라 참가하며 프랜차이즈 산업 홍보를 진행했다.

협력위원회(위원장 최인용)는 1월 11일 신년회를 열고, 협력회원의 비즈니스 매칭 활성화를 위해 2023년 협력회원사 브랜드북 발간을 준비 중이다. 여성회(회장 임미숙)도 2월 23일 강남구에서 임원모임을 통해 한 해 위원회 운영을 논의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손석우)는 3월 20일 개강 예정인 11기 KFCEO 과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박람회위원회(위원장 김성운)도 3월 30일~4월 1일 코엑스 제54회



IFS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 중이다. 산악회(회장 정민섭)도 3월 18일 시산제를 통해 올해 회원들의 심신 단련과 소통 강화를 계획 중이다. 경조회(회장 김광철)는 올해 더욱 적극적인 활동으로 신입 회원사의 협회 적응과 기존 회원사들 간의 친목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KFA

## 제32기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 과정 개강 3월 2일부터 15주간 진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원장 장재남)이 주관하는 제32기 프랜차이즈 최고전문가 과정이 3월 2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5주 과정에 돌입했다.

서울 강남구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에서 열린 입학식에는 장재남 원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20여명의 신입 원우들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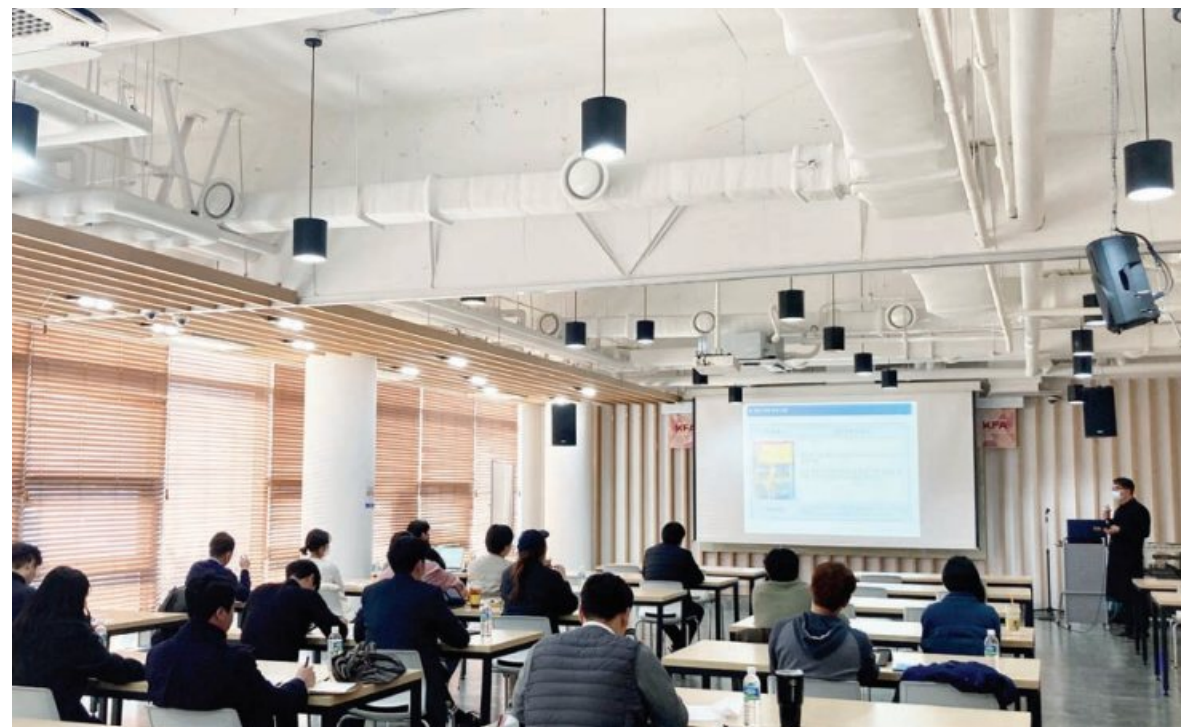
강석우 협회 상근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본 과정은 2006년 이후 프랜차이즈 CEO의 필수 역량과 윤리, 도덕적 소양을 함양시켜 우리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면서 “협회와 적극 교류하고 공동선을 함께 추구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고전문가 과정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부터 슈퍼바이징과 가맹점과의 생산적인 관계 교육까지 이론과 사례, 실습 중심의 종합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3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



14~18시 4시간 동안 진행된다. 수강 대상은 가맹본부 CEO 및 임직원, 가맹본부 창업 희망자 등이다.

또, 수료생들은 총동문회인 한국프랜차이즈전문가 포럼의 일원으로서 900여명의 동문들과 함께 프랜차이즈 산업의 단합에 기여하게 된다.



## 한국프랜차이즈協-벨킨스, ‘업계 위생 역량 제고’ 식품위생교육 성료

2022년부터 월례 정기 교육 지속

본사 재직자 가맹점 위생관리 역량 강화 교육 무료제공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3월 8일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재직자의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월례 가맹본부 식품위생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은 지난 1~2월 2회에 걸쳐 30여개 기업 총 50여명의 가맹본부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지난해부터 식품위생 종합관리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 ‘벨킨스’(Velkins)(대표 함지훈)와 식품안전·위생관리 솔루션 세계 1위 ‘이콜랩’(Ecolab·ECL) 한국지사가 맡고 있다.

가장 최근인 2월 교육에서는 ▲가맹점 원산지 관계법령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 및 실무 ▲최신 식품위생법령 개정사항 ▲이물 혼입 대응방법(음

식물 보상 책임 보험) ▲해충 관리 및 대응 방안 ▲올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업소별 주의 사항 및 개선필요사항 등으로 진행됐다.

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특성상 가맹점 관리와 연관된 본사 재직자들의 식품위생 역량도 국민 건강과 안정적인 브랜드 성장에 직결되는 요소”라면서 “높은 만족도와 실용성 높은 내용으로 재직자 교육에 역력이 부족한 중소 외식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위생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벨킨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회는 올해도 벨킨스 및 한국이콜랩(ECOLAB)과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제’와 식품의 원산지표시 법규준수 등을 확산할 예정이다. **KFN**



## 대구·경북지회 소식(지회장 김병철)

### 1월 정기월례회

1월10일(화) 오후 18시부터 협회 대구경북지회 강의실에서 2022년 결산보고와 2023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정기총회가 진행됐다. 대구경북지회가 북구 산격동으로 이전 후 처음 진행하는 정기총회에서는 이전을 축하하면서 제6대 임원진의 소개와 새로 진행되는 신규사업에 대한 안내 및 2023년 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대구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많은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을 시작하는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KFA

### 2월 정기월례회

2월 14일(화) 협회 강의실에서 정기월례회 및 무료 공개 세미나 교육을 진행했다. 뜨거운프차들 김상범 대표가 2023년 기준 가맹사업법 안내(광고/판촉사전동의 제도)에 대한 주제로 공개 세미나 교육을 진행했으며, 2월 월례회에서는 많은 신입회원이 소개됐다. 대구경북지회는 월 1회에 걸쳐 프랜차이즈에 도움이 되는 무료 공개 세미나와 월례회를 진행하고 있다.

KFA

### 3월 정기월례회 및 특강

3월 14일(화) 협회 강의장에서 ㈜맛담 한태원 대표의 '박람회로 100호점 만들기(박람회 준비과정, 상담스킬, 부스구미기 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 당일 현장에서 박람회 참가 계약시 부스 디스플레이 지원을 선착순 10개 업체에게 지원한다.

KFA

### 2023년 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in 대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지회장 김병철)가 주최·주관하는 '2023 KFA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대구'가 2023년 5월 11일(목)~13일(토) 대구 엑스코 2홀에서 개최된다.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를 통해 참가업체 및 참관객을 모집하고 있다.

2023년 KFA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in 대구  
참가문의 053-626-7664



2023. 05. 11. ~ 13.  
대구 엑스코 2홀

주최/주관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01 대구경북 최대규모

100여개의 브랜드가 한자리에 집결! 프랜차이즈의 메카 대구에서 최대 규모로 개최

02 공신력

프랜차이즈 트렌드와 성공신화의 중심인 대구광역시 공동 주최

03 대구경북 최대참관객

대구 뿐만 아니라 영남권에서 질 높은 방문객 10,000여명 방문



## 부산·울산·경남 지회 소식(지회장 오몽석)

### 2023년 신년하례식 개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는 2023년 1월 17일(화) "2023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1월 정기월례회)"를 개최했다. 2022년 사업실적과 결산 및 2023년 올해 부산울산경남지회의 활동 계획과 포부를 회원사들과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다. 제5대 부울경지회 오몽석 회장의 첫 시작인 정기회의에 많은 회원사들이 참석해 함께했다.

올 해에 부산울산경남지회는 다양한 정보와 프랜차이즈 현안을 회원사와 공유하는 정기월례회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중요 안건을 상정하고 결정할 정기이사회도 격월로 개최한다. 현재 부울경지회 소모임으로는 골프클럽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등산회, 사업협력분과와 신입회원관리분과, 회원경조사분과, 사회봉사분과 등 새롭게 분과 및 소모임을 개설해 회원사들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자 한다.

KFA

### 2월 정기월례회의 개최

2월 21일(화)에는 2월 정기월례회를 개최했다. 회원사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2023년 정부지원사업'과 '2023년 개정된 가맹거래법'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아울러 '모라종합사회복지관'과의 업무협약식, 신입회원 입회식과 프랜차이즈 소식을 전달하였다.

KFA

### 사회복지관서 첫 봉사활동 실시

2월 23일(목)에는 2023년 부산울산경남지회 첫 봉사활동을 개최했다. 지역사회 봉사에 이바지하고 프랜차이즈의 선한영향력을 전파하고자 부울경지회 오몽석 회장과 사회봉사분과 정종일 위원장이 발 벗고 나서 회원사들과 함께 모라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처럼 부울경지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실들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3월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4기 부산 프랜차이즈 사관학교'가 개강 예정이며, 등산대회와 정기월례회 등 또 다양한 활동을 준비중이다.

※ 정기월례회 매월 세 번째 화요일  
※ 회원가입문의 051-761-2066



2023년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식



2월 정기월례회 2023년 정부지원사업 특강



모라종합사회복지관과의 업무협약식



2023 첫 정기 봉사활동



## 2023년 3월 ~ 5월 교육일정 안내

## [재직자 무료교육] FC 빅데이터 상권분석(기초)

|      |                       |      |            |
|------|-----------------------|------|------------|
| 기 간  | 3월 16일(목) 10:00~19:00 | 교육장소 |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
| 교육인원 | 20명(선착순)              | 비 용  | 국비지원 무료교육  |

교육대상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슈퍼바이저 및 가맹본부 점포개발 업무수행자 또는 수행예정자

목 표 :상권 및 점포개발이론, 관련 기본지식을 학습을 통해 가맹점 입지를 설계할 수 있는 기초역량 함양

훈련내용 :상권 및 입지분석 개념 및 프로세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권 유형별 입지전략, 상권분석 데이터수집 및 프로그램 활용 기초 등

## [재직자 무료교육] FC 빅데이터 상권분석(심화)

|      |                       |      |            |
|------|-----------------------|------|------------|
| 기 간  | 3월 23일(목) 10:00~19:00 | 교육장소 |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
| 교육인원 | 20명(선착순)              | 비 용  | 국비지원 무료교육  |

교육대상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슈퍼바이저 및 프랜차이즈 본사 점포개발 업무수행자 또는 수행예정자

목 표 :가맹상권분석에 필요한 정부·공공·민간기관 상권분석프로그램 및 사이트를 활용하여 실제 상권분석데이터 수집 및 분석안을 도출하는 능력 함양

훈련내용 :빅데이터 활용 상권 모델링, 상권입지 분석, 상권분석보고서 작성 등

## [재직자 무료교육] FC 가맹영업

|      |                       |      |                      |
|------|-----------------------|------|----------------------|
| 기 간  | 4월 20일(목) 10:00~19:00 | 교육장소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
| 교육인원 | 20명(선착순)              | 비 용  | 전액 무료                |

교육대상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 경영기획분야 업무수행자 또는 수행예정자

목 표 :가맹점 영업전략 수립, 고객상담 전략 습득을 통한 프랜차이즈 가맹영업 능력 함양

훈련내용 :가맹영업전략 및 스킬

## [재직자 무료교육] 가맹상생과 분쟁예방

|      |                       |      |                      |
|------|-----------------------|------|----------------------|
| 기 간  | 4월 27일(목) 10:00~19:00 | 교육장소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
| 교육인원 | 20명(선착순)              | 비 용  | 전액 무료                |

교육대상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슈퍼바이저 및 직영점 경영분야 업무수행자

목 표 :가맹사업 단계별 실제 분쟁사례 및 예방 방안과 가맹본부-가맹점 간의 갈등관리 및 상생 전략을 학습을 통해 가맹사업 분쟁 사전예방 능력 함양

훈련내용 :가맹사업 분쟁예방 전략 및 상생방안, 가맹점 갈등 예방 및 협의 전략

## [재직자 무료교육] 가맹계약의 이해

|      |                       |      |                      |
|------|-----------------------|------|----------------------|
| 기 간  | 5월 11일(목) 10:00~19:00 | 교육장소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
| 교육인원 | 20명(선착순)              | 비 용  | 국비지원 무료교육            |

교육대상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슈퍼바이저 및 가맹본부 점포개발 업무수행(예정)자

목 표 :가맹계약 작성 및 해석방법과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및 핵심 내용 학습을 통한 가맹계약의 효과적인 체결 및 관리능력 함양

훈련내용 :가맹계약 및 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조항별 검토 및 작성 실무

## [재직자 무료교육] 불공정거래행위 분쟁관리

|      |                       |      |                      |
|------|-----------------------|------|----------------------|
| 기 간  | 5월 18일(목) 10:00~19:00 | 교육장소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
| 교육인원 | 20명(선착순)              | 비 용  | 국비지원 무료교육            |

교육대상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슈퍼바이저 및 가맹본부 점포개발 업무수행(예정)자

목 표 : 분쟁 조정 및 소송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및 대응전략을 파악하여 가맹사업 관리능력 함양

훈련내용 : 분쟁조정 및 소송 프로세스,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및 판례 이해, 분쟁조정 및 소송 대응전략

## [재직자 무료교육] 가맹점 노무관리 실무

|      |                       |      |                      |
|------|-----------------------|------|----------------------|
| 기 간  | 5월 25일(목) 10:00~19:00 | 교육장소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강서 교육장) |
| 교육인원 | 20명(선착순)              | 비 용  | 국비지원 무료교육            |

교육대상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슈퍼바이저 및 가맹본부 점포개발 업무수행(예정)자

목 표 :가맹사업과 직결된 노동법 및 노무관리 실무 방법 및 최근 고용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학습하여 가맹점 인적자원 관리능력 함양

훈련내용 :가맹사업 근로환경 변화, 가맹점 노무관리 실무

## 2023.01.26~2023.02.28 신규회원 현황

| 구분    | 협회대표   | 사업자대표 | 회사명          | 브랜드명               | 업태             | 가입일         |
|-------|--------|-------|--------------|--------------------|----------------|-------------|
| 정회원   | 김보민    | 김보민   | (주)양치기소년들    | 커피디셈버              | 제조업(커피가공업)     | 2023.01.26. |
|       | 이종성 상무 | 이권형   | (주)선진멧       | 펫마트                | 도매업(사료및용품)     | 2023.02.01. |
|       | 이상현    | 이상현   | (주)리마커블교육    | 링키영어               | 서비스업(교육)       | 2023.02.16. |
| 협력 회원 | 양도현    | 양도현   | 주식회사투와이      |                    | 정보통신업          | 2023.01.20. |
|       | 곽성민    | 오천홍   | (주)모든방역 서울지점 | 모든방역(The Carezone) | 서비스업           | 2023.01.26. |
|       | 이세진 이사 | 이세영   | (주)멤스        | 멤스(MUMS)           | 제조업            | 2023.01.31. |
|       | 김재환    | 김민영   | 케이네트웍스       |                    | 서비스업(금융)       | 2023.01.31. |
|       | 김현봉    | 이명수   | (주)엘케이코퍼레이션  | fujimak            | 제조업(주방기구)      | 2023.02.03. |
|       | 이상용    | 이상용   | (주)아평        | 아평                 | 제조업            | 2023.02.13. |
|       | 천성우    | 천성우   | (주)피에스디엘     | 오늘                 | 서비스업(소프트웨어)    | 2023.02.13. |
|       | 한정숙    | 한정숙   | (주)한스앤수쿠니에   | 한스유니폼              | 제조업            | 2023.02.13. |
|       | 안은정    | 안은정   | (주)패밀리애드     | 패밀리애드              | 서비스업(광고)       | 2023.02.15. |
|       | 이성진    | 이성진   | (주)우영종합물류    | 우영종합물류             | 서비스업(물류)       | 2023.02.22. |
|       | 성백진    | 성백진   | (주)다우데이터     | 키움페이               | 정보통신업(포스, 단말기) | 2023.02.28. |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윤리강령

개정 2016. 06. 30

### 전 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는 윤리경영의 시대적 사명감을 안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경영활동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문화를 지향한다.

또한 프랜차이즈산업을 국가 성장에 기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시켜 가맹본부와 가맹점, 소비자가 함께 동반상생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이에 세부행동 지침을 마련하여 신뢰를 높이고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한 회원사의 권익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 I. 기본강령

#### 1. 국가 경제 성장 동력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회원사는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며, 나아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2. 신뢰와 협동

회원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 도입 및 서비스 제공의 질적 향상과 프랜차이즈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협력한다.

#### 3. 공정한 경쟁과 거래

회원사는 관련 법규의 철저한 준수를 통하여 공정 경쟁질서 확립 및 자율적 경쟁거래를 수행한다.

####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회원사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봉사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 5. 동반상생을 통한 기반 마련

회원사는 기업 및 가맹점, 고객의 상생을 통하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II. 행동지침

#### 1. 국가 경제 성장 동력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가. 회원사는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나. 회원사는 물적, 인적 시스템 구축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다. 회원사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 노력한다.

#### 2. 신뢰와 협동

가. 회원사는 상호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존중한다.

나. 회원사는 어떠한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가맹점주가 되고자하는 고객을 기만하거나 오인하지 않도록 준수한다.

다. 회원사는 다른 기업의 상표, 상호, 회사명, 표어 또는 기업을 식별하는 기타 표지를 모방하지 않는다.

라. 회원사는 가맹점주 또는 잠재고객에게 가맹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서면으로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마. 회원사는 가맹점주 또는 잠재고객에게 사전공시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충분히 준수하여야 한다.

#### 3. 공정한 경쟁과 거래

가. 회원사는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시장경쟁질서를 존중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도모한다.

나. 회원사는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상도위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한다.

다. 회원사는 비방광고 및 과장광고를 지양한다.

라. 회원사는 프랜차이즈 관계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모두 계약서에 기입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가. 회원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가격 및 상품의 동질성을 앞세워 지역 간 소비자 후생의 격차를 해소하여 국민 후생 증대에 기여한다.

나. 회원사는 국민들의 건전한 감시를 겸허히 수용하며, 사회적 신뢰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다. 회원사는 사회복지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기부, 모금, 지원, 나눔행사 등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 5. 동반상생을 통한 기반 마련

가. 회원사는 산업 구성원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바탕이 된 동반성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존공영(共存共榮)을 실현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

나. 회원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적극 협조한다.

다. 회원사는 가맹점주의 영업 운영능력을 개선·향상시키도록 권장하고 그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라. 회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합리적인 의견소통을 이끌고 불평, 고충 및 논쟁의 해결에 있어서 신뢰와 선의에 입각해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 III. 윤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가. 본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회원사 및 고객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내에 '윤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나. 윤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운영기준으로 정한다.

다. 회원사의 윤리강령 관련한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윤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착한 K-프랜차이즈는 <sup>자리</sup>일·<sup>생</sup>상이다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을 선도합니다.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가맹점을 지원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회원사 100여곳을 발굴해 널리 알리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생 협력 확산을 이끌고 있습니다.

### ‘K-프랜차이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립니다.

WFC(세계프랜차이즈협의회)·APFC(아시아태평양프랜차이즈연맹) 총회 참가·개최로 세계 각국의 프랜차이즈 업계와 교류하고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해 ‘K-프랜차이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과 상생으로 서민경제를 지탱합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가 GDP의 6.9%(매출 120조원)와 경제활동인구의 4.5%(종사자 수 125만 명)를 갖춘 기반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창업의 순기능을 활성화해 국가 경제와 서민 경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 혜택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프랜차이즈 산업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FC(세계프랜차이즈이사회) 정회원 · APFC(아시아태평양프랜차이즈연맹) 정회원사입니다.

혜택 1

##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큰 힘이 되어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권익 대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가입된 모든 회원사는  
가맹사업진흥법과 가맹사업법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2

## 성공 창업의 요령! 국내 최대 규모 프랜차이즈박람회 부스비 10% 환급

국내 최대 규모 프랜차이즈박람회 개최!  
부스 참가 시 행사 후 부스비 10%의 환급 혜택을 드립니다.

혜택 3

## 해외진출을 꿈꾸는 회원사에게! 해외진출 사업지원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글로벌한 영업 확장을 위해  
해외 진출 사업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혜택 4

## 프랜차이즈 전문가를 향한 프랜차이즈 정부무료교육 외

프랜차이즈 국가인적자원 무료교육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법안 수시 교육,  
프랜차이즈최고전문가, 프랜차이즈 5.0리더, 프랜차이즈사업 전략전문가,  
슈퍼바이저 전문가 등 각종 협회 교육 수강료를 할인해드립니다.

혜택 5

## 가맹계약서, 분쟁 조정 사항 등 각종 정책 정보 제공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또는 법률·세무 자문과 정책 정보가 필요한 회원사에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문위원과의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혜택 6

## 최고경영자(CEO)대상 윤리준수교육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최고경영자(CEO)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글로벌시대에 맞는 윤리경영의식을 함양시켜 드립니다.

혜택 7

## 학사 및 석사 학위 과정 장학금 혜택

경희사이버대학교 전학과, 서울디지털대학교 전 학과, 세종사이버대학교 전 학과,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물류유통,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글로벌프랜차이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프랜차이즈 경영 등  
기타 최고위 과정의 장학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 8

## CEO포럼, 법률 세미나 등 포럼·세미나 행사 참가

정기 프랜차이즈 전담세미나,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성공창업전략 세미나,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세미나 등  
다양하고 알찬 행사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혜택 9

## 새로운 홍보 플랫폼 홈페이지·잡지·신문·미디어 홍보

프랜차이즈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전파!  
각종 회원사 홍보, 인터뷰 및 행사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와 공유 할 수 있습니다.

혜택 10

## 회원사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회원사 전자수첩 등재 및 이용자격

회원사 간 원활한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고자 오직 회원사에게만  
회원사 전자수첩 등재 및 이용자격을 제공합니다.

혜택 11

## 각종 규제 개선 건의 대정부 정책 건의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진흥법 등  
법안 제정 및 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혜택 12

## 회원사 대상 복지 서비스 쿠쿠홈시스렌탈,웅진플랫폼,보험비교견적,꽃배달 등

렌탈서비스 할인(쿠쿠홈시스), 디지털전환 지원(웅진구독서비스,그룹웨어, ERP  
콜센터등), 협회지정업체 보험료비교견적(한국단체보험연합), 전국 꽃배달 회원  
사 할인(레이디플라워)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혜택 13

## 프랜차이즈 산업인들과의 정기적 교류 다양한 친목 프로그램 참가

협회 내 분과위원회 활동, 신입회원사간담회  
워크숍, 봉사활동,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송년회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혜택 14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원사를 위한 종합검진 할인 혜택

협회 회원사 건강지킴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아산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특별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 15

## 최고 권위의 프랜차이즈 업계·정책 전문지 <월간 프랜차이즈 월드>무료구독

프랜차이즈산업인들의 현장 및 활동상을 탐사 기획하고 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에  
대응하며, 유기적인 소통의 장으로 회원사를 널리 알리고 있는 공식 협회지  
월간 프랜차이즈월드 잡지 무료 구독 특별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 16

## 문자 메시지, SNS 등을 통한 업계 최신 뉴스·소식 안내

회원사 전용 네이버 밴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매일 중요한 업계 뉴스를 선별한 뉴스클리핑 서비스와  
신속·정확한 주요 정책 소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원가입 관련문의: Tel. 02)3471-8135~8, 070-7919-4145(직통)

※ KFA 홈페이지: <http://www.ikfa.or.kr> /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61길 29 SBA 국제유통센터 A동 101, 102호(등촌동, 647-26)

# 회원가입 신청서

## 신청인 정보

☐ 정회원

☐ 협력회원

|                  |                   |      |       |                                                             |                                                                                                         |
|------------------|-------------------|------|-------|-------------------------------------------------------------|---------------------------------------------------------------------------------------------------------|
| 사 진<br>(3cmX4cm) | 회 사 명             |      |       | 전 화 번 호                                                     |                                                                                                         |
|                  | 브 랜 드 명           |      |       | 휴 대 전 화<br>(대표자)                                            |                                                                                                         |
|                  | 대 표 자 명           |      |       | 팩 스                                                         |                                                                                                         |
|                  | 대 표 자<br>(주민등록번호) |      |       | 이 메 일<br>(대표자)                                              |                                                                                                         |
| 회 사 주 소          |                   |      |       |                                                             |                                                                                                         |
| 홈 페이지            |                   |      | 업 종   |                                                             |                                                                                                         |
| 담당 직원            |                   | 이름 : | Tel : | 가 입 경 로                                                     |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추천인(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계 작 정보           |                   |      |       | <input type="checkbox"/> 개인 / <input type="checkbox"/> 법인통장 | 출 금 일 자<br>매월 <input type="checkbox"/> 5일 / <input type="checkbox"/> 14일 / <input type="checkbox"/> 28일 |
| 회 사 명            |                   |      |       | 계 좌 번 호                                                     |                                                                                                         |
| 대 표 자 명          |                   |      |       | 주민등록번호<br>(사업자등록번호)                                         |                                                                                                         |
| 월 납 입 액          |                   | 금    | 원 (₩  | 협 회 계 작 번 호                                                 | 국민은행 644837-04-001180<br>* 외환은행 630-008754-827<br>예금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 【CMS 출금이체 약관】

-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 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은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 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 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출금이체 신규 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기로 하며 출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기로 합니다.
-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 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 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 연회비는 매년 1월에 한하여 징수하며 1월 이외 중도 가입시에는 월회비로 납부합니다.
-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의 목적을 위하여 신규신청 하는 날로부터 해지신청하는 시점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경계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서】

위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회원가입의 목적을 위하여 신규신청하는 날로부터 해지 신청하는 시점까지 사단법인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모든 약관동의 (☐ 동의 / ☐ 미 동의)

[관련문의] Tel)070-7919-4145 [필수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회사소개서, 정보공개서, 대표이력서

[협회연락처] Tel)3471-8135~8 Fax)3471-8139 mail)jinpark@ikfa.or.kr 주소)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61길 29 SBA 국제유통센터 A동 101, 102호 우)07563

상기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관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202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프랜차이즈월드  
Franchise  
WORLD

## 정기구독 안내

프랜차이즈월드는 150만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인들의 현장 및 활동상을 탐사 기획하고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 수립에 대응하며, 프랜차이즈산업인들 상호 간에 유기적인 소통의 장으로 회원사를 널리 알리는 협회 공식 격월간지입니다.

### 구독료 안내

값: 1권 10,000원 / (주)KFN에드콤/ 입금계좌: 하나은행 389-910002-30504  
전화 (02)556-7889, 팩스 (02)556-5281로 받으실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 광고단가 안내

\*연 5회 계약시 1회 서비스 (VAT 별도)

| 구분 | 유형           | 금액    | 수량 | 크기 (가로×세로mm)                                |
|----|--------------|-------|----|---------------------------------------------|
| A  | 표 4(뒷표지)     | 600만원 | 1면 | 전면컬러<br>226×296<br>(300dpi 해상도의 ai, psd 파일) |
| B  | 표 2 / 표 2 대면 | 400만원 | 1면 |                                             |
| C  | 표 3 / 표 3 대면 | 300만원 | 1면 |                                             |
| D  | 목차 대면        | 250만원 | 1면 |                                             |
| E  | 내지           | 200만원 | 1면 |                                             |

### 광고, 콘텐츠, 구독 제한

\*광고료 부가세별도

#### 프랜차이즈월드

- 광고 1P 기본 200만원(내지): 연5회 계약시 1회 서비스
- 콘텐츠 2P + 광고 1p: 300만원
- 광고진행시 포털 (네이버, 다음)에 월1회 기사 게재

#### 한국프랜차이즈산업신문 온라인 광고

- 배너 월 100만원(연 1,000만원)
- 청약브랜드 기사 게재 (보도자료 제공시)

#### 창업도 온라인 광고

- 메인화면 월 200만원 (연 2,000만원)
- 서브화면 월 50만원 (연 500만원)

## 창업도,

- 누적 조회수: 510만명
- 월간 조회수: 20만명
- 프랜차이즈 7,200 브랜드 순위 검색 사이트

창업도

귀사의 발전과 마케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광고대행사 **KFN에드콤** ☎02.556.788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9, 706호(두일빌딩 여의도)

# 국가대표 식품자동포장기 Enterpack®



깔끔하게!  
안전하게!  
편리하게!

식품 포장, 판매 프랜차이즈의 든든한 파트너!!



대표번호 031-434-9020

www.enterline.co.kr

NSF: 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미국 위생협회 승인



www.enterline.com